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유 정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유 정

인 준 서

이유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2015년에 법제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제화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시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에 동시를 접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도 고안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인성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사회 인성교육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인성을 부모를 닮는다고 하여 산모의 태중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태교의 이론과 실제적 실천방안을 담은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의 내용 일부를 고찰하였다. 또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 담긴 조선시대 『사소절』 동구편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의 여덟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사회의 아동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던 바른생활과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았고, 2009년 처음 신설되어 현재 실행 중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능과 인성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동시문학의 개념과 역사를 알아보고 그 교육적 가치에 주목했다. 또한, 아동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좋은 동시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동시의 특성을 알아보고 각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의 여덟 가지 가치·덕목을 배울 수 있는 동시를 선정하여 인성교육 콘텐츠로 구성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다섯째, 인성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활용 방법으로 ‘동시 낭송 교수법’을 제안하였으며, 동시 낭송 후 연계 활동으로 ‘날 말 놀이하기’, ‘삽화 그리기’, ‘동요 감상하기’, ‘편지 쓰기’, ‘상장 만들기’, ‘마인드맵 그리기’, ‘동시로 동화 짓기’의 일곱 가지 활동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성교육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제안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정서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교수자들이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용어의 정의	7
II. 아동 인성교육	9
1. 인성교육의 개념	9
2. 전통사회의 아동 인성교육	10
3. 현대사회의 아동 인성교육	24
III. 동시문학의 이해	37
1. 동시문학의 개념 및 역사	37
2. 동시문학의 교육적 가치	43
3. 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	52
IV.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구성 및 적용	69
1.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의 구성	69
2.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의 적용	82

V.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바움린드의 3가지 부모 양육 태도 유형	26
〈표 II-2〉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비율	32
〈표 II-3〉 2015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비율	33
〈표 II-4〉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36
〈표 III-1〉 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	53
〈표 IV-1〉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70
〈표 IV-2〉 동시 낭송 후의 연계 활동	87
〈표 IV-3〉 아름다운 순우리말	89
〈표 IV-4〉 단계별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100

그림 목 차

〈그림 IV-1〉 동시 「빵 세 개」의 삽화	91
〈그림 IV-2〉 동요 「종이학」의 악보	93
〈그림 IV-3〉 외국인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쓰는 편지	95
〈그림 IV-4〉 해님에게 주는 상장	98
〈그림 IV-5〉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마인드맵	102
〈그림 IV-6〉 동시로 동화 짓기	1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거대한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눈부신 공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의 서구화는 남존여비 같은 일부 불합리한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의 대화 단절과 지나친 수평적 구조의 강조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 형태 또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보편화를 이루면서 가족 구성원의 보호나 교육의 기능이 약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아동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 이하(0.98명)를 기록했다. 이는 출생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70년 이후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¹⁾ 젊은 세대는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없어 방과 후에 외톨이로 지내는 아동이 늘고 있으며, 부모의 맞벌이, 이혼, 사별 등 가족 해체가 늘어나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는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일부 아

1) 정지우, 「평생 1명도 안 낳는다」, 파이낸셜 뉴스, 2019. 7. 23.

동은 가족 내에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밥상머리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서적, 도덕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아동들은 고민이 있어도 정서적 교류를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스트레스를 풀거나 채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아동들은 밤새 게임을 즐긴 후, 학교 수업 시간에 발작적으로 수면에 빠지는 기면증을 앓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의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부 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가출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 훈육을 포장한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은 아동의 발달장애나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어릴 때 배워야 하는 사람됨의 기본 교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은 그 책임을 학교에 전가했다. 학교 환경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권을 부르짖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아동들에게 참된 훈육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지 못한 경쟁 구도 안에서 만족할만한 인성교육을 행하기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은 주로 도덕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피해 학생은 더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시 가해 학생 그룹에 가담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과거의 학교 폭력은 금품 갈취나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목적이 불분명한 지능적인 폭력이 주를

이른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카톡 감옥, 왕따, 빵셔틀 등 이유 없는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명의 학생을 목표로 여럿이 반복적인 폭력을 가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르는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점점 지능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측한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²⁾을 제정, 공포하여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동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정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³⁾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 법에 따라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인성교육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위한 학교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정 내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 지역 내 교육 등을 포괄한 의미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기존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나 연수의 기회조차 부족한 교과 지도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성교육 전문가들에 의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3)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4)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P.38.

2) 연구 목적

본 연구자는 정서적이고 창의적인 인성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를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동시 작품을 인성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문학작품을 읽고 자란 아동은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문학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문학 구조를 선호하지 않지만, 독자가 아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동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캐릭터의 선과 악이 갈등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대부분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을 얻는다. 아동들은 이러한 문학작품을 읽을 때 현실과 나를 동일시하여 작품 속 캐릭터에 감정 이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작품 속 캐릭터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러한 내면화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길러준다.

김경일(2019)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시(詩)를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논설하였다. 과학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유추 능력은 인간의 고등정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고 능력이 뛰어나며, 유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 체력은 은유(메타포)이며 은유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장르는 바로 시(詩)임을 강조하였다.⁵⁾ 이는 어릴 때부터 동시를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이 정서 함양과 함께 창의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서 함양 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

5) 김경일, 「시 속 '은유' 읽다 보면 과학적 유추 능력도 향상된다」, 조선일보, 2019. 7. 17.

육 콘텐츠에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한 장르인 동시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구성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김경주(2017)는 국어과 문학 수업을 통해 창의·인성 함양의 방법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연구를 시행하였다.⁶⁾ 김영선(2015)은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통한 인성교육 수업모형을 구안하였다.⁷⁾ 이러한 김영선의 연구처럼 현직 교사가 국어과 안에서 인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인성교육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 예이다. 하지만 현재 교과 수업은 문학 영역 안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설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시 한 편 제대로 지어보지 못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국어과인 문학교육 안에서 행하는 인성교육은 교사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고,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단기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문학 수업 내 인성교육의 시도조차 대부분 중학생 이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여서, 학교 내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생을 겨냥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문학 평론집 속의 간결한 글이지만 이준관(2015)은 동시를 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동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아동들이 동시를 읽고 즐길 때 이 같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똑같이 느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인성도 좋아진다고 시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치를 언급하였다.⁸⁾ 아동문학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한 진선희(2015)는 아동문학의 동심 세계 경험을 통한 전체성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⁹⁾ 이것으로 인성교육이 현장에서

6) 김경주, 「문학교육이 창의·인성에 미치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1-160.

7) 김영선, 「문학, 텍스트를 통한 국어과 인성교육 프로젝트 수업 모형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113.

8) 이준관, 「시를 통한 인성교육」,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2015, pp.18-20.

9) 진선희, 「아동문학과 인성교육의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지, 청람어문교육, 2019, pp.1-115.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적 있는 동시를 선별하여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인성교육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아동 인성교육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성교육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전통사회의 아동 인성교육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므로 태아기의 인성교육과 아동기의 인성교육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태아기의 인성교육으로는 전통 태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조선시대 태교서인 『태교신기』의 내용 중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고, 아동기 인성교육은 조선시대 사회와 교육 현실에 맞게 쓰인 규범서인 『사소절』 「동규」 편에서 현재 인성교육법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가치·덕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의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가정 내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예절지도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실행 중인 7차 교육과정 안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도덕과’를 중심으로 학교 인성교육은 어떻게 요구되어 왔는지 그리고 교과 과정 이외의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의 의무화를 위하여 법제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이란 무엇이며, 추구하는 가치·덕목은 무엇인지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

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Ⅲ장에서는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시문학의 개념과 역사, 동시문학의 교육적 가치 등을 기술하여 동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시인이 아닌 교수자도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자의 작품 중 신문이나 동시집 또는 각종 문예지에 기사화된 작품을 동시의 특성별로 제시하고 해설을 첨가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교수자가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과 관련된 국내 유명 작가들의 동시 1편씩을 선정하여, 인성교육에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동시 낭송 콘텐츠를 구성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낭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동시 낭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낭송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동시 낭송 후 연계 활동으로는 그동안 연구자가 독서논술 지도를 할 때 독후 활동 콘텐츠로 활용하던 방법들을 제안하거나 동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활동 방법을 고안해 제안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도록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성교육의 영역은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을 ‘인성 8대 가치·덕목’으로 명명한다. 둘째, 현행 맞춤법상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 단어이지만 붙여 써야 의미 전달이 빠른 단어들, 전문 용어들, 비슷한 단어가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 한 단어로 용어 해설이 되어있는 단어들, 한 단어로 인식되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시

각적으로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모두 붙여 썼다. 예를 들어 아동문학, 동시문학, 문학작품, 예술작품, 조선시대, 민족의식, 민족문화, 가치·덕목, 예절지도, 식사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 전통사회, 현대사회,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인성교육,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주제, 체험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핵심가치, 핵심역량, 역량강화, 대인관계, 수업시간, 바른생활, 체험학습, 교육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수가 해당한다.

Ⅱ. 아동 인성교육

1. 인성교육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인성(人性)이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한다. 영어로는 character 또는 personality인데, character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개개인의 성질이나 경향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특성이며, personality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인 본성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는 인성이란 character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 인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방법을 특색 짓는 일련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인성은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포괄하는 인간성을 의미하며 실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돕는 마음과 자세를 오랜 기간의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쌓아가는 능력이다. 인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다.¹²⁾

이상의 인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의 8대 가치·덕목에 제시된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 등의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음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인성의 특성을 체험하

10) 박인선,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인성교육의 현황 및 인성 실천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11.

11) 이효자 외,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p.304.

12) 김태정, 「창의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4.

고 습득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활동¹³⁾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협력과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현되는 것¹⁴⁾이므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도덕적 양심에 따라 바르고 가치 있게 가꾸어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2. 전통사회의 아동 인성교육

전통사회의 인성을 말할 때,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이 회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맹자에 의한 인성(마음씨)은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며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바탕이 된다. 인은 측은지심(惻隱之心)¹⁵⁾, 의는 수오지심(羞惡之心)¹⁶⁾, 예는 사양지심(辭讓之心)¹⁷⁾, 지는 시비지심(是非之心)¹⁸⁾의 천성에서 발현되므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했다. 한편 순자는 인간의 인성(욕망)은 비록 악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선한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 조상들은 태교를 하며 맹자의 인의예지가 바탕이 되는 심성을 지닌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하였고, 후천적 교육을 통해 자녀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힘썼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반대되는 이론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두 이론을 적절히 취하여 실행에 옮겨왔다. 인성교육과 관련해 맹자의 논어가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논어의 중심 내용이 학(學)과 인(仁)이기 때문이다. 학(學)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仁)은 이러한 배움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인 ‘사람다움’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

13) 박인선,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인성교육의 현황 및 인성실천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16~17.

14) 조미옥, 『인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책들, 2015, p.37.

15)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16) 수오지심(羞惡之心):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17) 사양지심(辭讓之心):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18) 시비지심(是非之心):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합해 볼 때, 전통사회에서 인성교육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고 실행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태아기의 인성교육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의 인성이 곧 자녀의 인성으로 이어진다는 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부모의 소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인 태교를 중요하게 여겼다.¹⁹⁾ 태교란 임산부가 장차 태어날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태아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면서 언어, 행동, 몸가짐 등을 조심하는 태중 교육을 뜻한다.²⁰⁾ 태교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수정될 때부터 한 인격체로 본다는 인간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태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전인 교육의 첫걸음으로 생각했다. 또한, 임산부는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가족과 함께 교감하며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두어야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현대는 임산부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임산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경계해야 할 것들에 더 집중하여,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는 등 예(禮)로서 도(道)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태교신기(胎教新記)』는 1800년경 조선시대(정조 24)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가 한문으로 글을 짓고, 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가 한글로 해석한 태교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이 지금껏 널리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태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태교해야 하는 이유와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이 책은 2부작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

19) 주영애, 「『士小節』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에 대한 현대적 해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2018, p.522.

20)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신정, 2018, p.91.

21) 사주당 원저, 최희석 번역, 『태교신기』, 한국학술정보원, 2010, p.10.

어 있다. 한문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유희가 풀이해 놓은 수고본(手稿本)인 유일본이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²²⁾

『태교신기』는 태교가 인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어진 스승의 십 년 가르침도 아직 어미의 열 달 동안 가르침만 못하다’라는 태중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우리의 전통 태교가 다른 나라의 태교와 다른 점은 임신 전 태교와 부성 태교를 강조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 태교신기의 1장 3절에 태교의 책임은 아버지에게도 있다고 명시하여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부모 교육이지만 산모와 태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한 교육이다. 태교신기 장구대전(胎教新記章句大全)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저자의 집필 동기가 잘 드러나 있다.

진주 유씨 부인 사주당 이씨가 쓰고 그 아들이 음의(音義)를 풀이하다. 『여범(女汜)』에 옛날 현명한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는 반드시 태교를 하여 몸가짐을 삼갔다. 지금 모든 글을 살펴보아도 그 상세한 법을 찾을 수가 없기에 스스로 뜻을 구하여 보니 가히 알 수 있는지라, 내 일찍이 여러 번 아이를 임신하여 생육한 체험을 기록하여 그것을 한 편으로 저술해 모든 여인에게 보이어나니 이는 감히 자기 멋대로 스스로 저술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가히 내칙(內則)에 빠진 것을 갖추었으므로 이름하여 『태교신기』라 한다.²³⁾

태교신기장구대전(胎教新記章句大全)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는 태교에 관련하여 제대로 된 책이 없었고, 또한 중국의 『여범』, 『예기』 「내칙」 등

22) 진애라, 「胎教新記」를 통해 본 전통사회의 태교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5.

23) 본 논문의 『태교신기』 원문에 대한 해석은 최희석의 해석본을 가져왔고 직역이나 의역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胎教新記』, 胎教新記章句大全, “晉州, 柳氏婦, 師朱堂, 完山李氏著, 子男倣, 釋音義. 女範曰, 上古賢明之女, 有娠, 胎教之方, 必慎, 今考之諸書, 其法, 莫有詳焉, 自意求之, 蓋, 或可知矣, 余以所嘗試於數四娠育者錄爲一編以, 示諸女 非敢擅自著述, 夸耀人目, 然, 猶可備內, 則之遺闕也, 故名之曰胎教新記.”

에 태교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상세하고 구체적인 태교 방법이 드러나 있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을 생육한 경험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을 저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은 하늘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고, 그 기질(氣質)은 부모에게서 만들어진다. 기질이 편승(偏勝)²⁴⁾하면 점점 타고난 성품을 가리게 되므로 부모는 마땅히 낳고 기르는 것을 삼가 근신하지 않을 수 없다.²⁵⁾

이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그 기질을 물려받으므로 타고난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늘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을 가리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모의 태교와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이다. 부모와 스승의 위치는 같다. 의술이 좋은 의사는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스승의 십 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임신 중 열 달 기르는 것만 못하고, 어머니가 열 달 기르는 것이 아버지가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²⁶⁾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과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 오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태 중 열 달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24) 편승(偏勝):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쏠림.

25) 第1章 第1節, 生氣質之由, “人生之性, 本於天, 氣質成於父母, 氣質, 偏勝, 馴至于蔽性. 父母生育其不謹諸.”

26) 第1章 第2節, 胎教爲本師教爲末, “父生之, 母育之, 師教之 一也. 善醫者, 治於未病, 善數者, 數於未生. 故, 師教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

무릇 나무는 가을에 태(胎:눈)가 생기어 비록 거칠어도 오히려 곧게 뻗는 성품이 있고, 쇠는 봄에 배태(胚胎)²⁷⁾하는 것이어서 비록 굳세고 날카로우나 오히려 흘러서 합치는 성질이 있으니, 태(胎)라는 것은 성품의 근본이며 그 형상을 한번 이룬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그 끝 [末] 이 되리라.²⁸⁾

사물의 성질은 배태되었을 때의 기름 [養] 에 의한다. 태는 성품의 근본이므로 일단 형상을 이루고 나면 뒤에 형상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된다. 잉태 시 성품과 성질이 이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중에도 태아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과거 성왕(聖王)이 태교의 법을 두어 임신 후 별궁(別宮)에 나가 기거하게 하여, 눈을 흘켜보지 아니하고, 귀에 망령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풍류 소리와 기름진 음식을 예(禮)로써 절제하였으니, 이는 배 속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리 가르치고자 함이었다. 자식을 낳아 그 할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불효(不孝)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고로 군자(君子)는 가르침을 미리 하고자 하나니, 시(詩)에 말하길 ‘효자가 끊이지 아니하며 길이길이 주신다’라고 하였다.²⁹⁾

과거에는 여성이 임신하면 별도의 거처에 머무르며 상스러운 것을 보고 듣지 아니하며 태교에 전념하였다. 그것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해로운 것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임부와 태아를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 임신 중에 맛있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입덧하는 동안 평상시 먹던 음식이 싫어지며 독특한 음식을 찾게 되므로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운 것을 섭취하지 못하게 함이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예(禮)로서

27) 배태(胚胎): 아이나 새끼를 뱀.

28) 第2章 第1節, 物之性, 由於胎時之養, “夫木胎平秋, 雖蕃廡, 猶有挺直之性. 金胎平春, 雖勃利猶有流合之性, 胎也者, 性之本也, 一成其形而教之者, 末也.”

29) 第3章 第1節, 人有胎教而其子賢, “古者聖王, 有胎教之法, 懷之三月, 出居別宮, 目不妄視, 耳不妄聽, 音聲滋味, 以禮節之, 非愛也, 欲其教之豫也, 生子而不肖其祖, 比之不孝. 故, 君子, 欲其教之豫也, 詩曰, 孝子, 不匱, 永錫爾類.”

절제해야 하는 것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편식을 막기 위함이고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기 위한 태중 교육이다.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은 삼가야 하는 태교는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덕목이었다.

2) 아동기의 인성교육

전통사회에서는 태아기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아동기의 인성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조상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예의범절을 가르치며 생활지도를 하였다. 이는 아동의 전인 발달을 위하여 내적 심성과 외적 행동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생활지도였다.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지어진 조선시대 규범서인 『사소절』의 동규편을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소절』은 사소한 예절이라는 뜻으로 그를 살피서 그 허물을 적게 하려는 데 집필 목적이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에 집중하였으며, 현대 아동들의 생활지도에 접목하여도 어색함이 없는 실천 규범서이다.

『사소절』은 조선시대(영조 51) 실학자이며 문장가인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가 저술하였다. 남자의 예법인 사전(士典) 5권, 부녀자의 예절인 부의(婦儀) 2권, 아동의 규범인 동규(童規) 1권으로 총 8권을 마련하고, 그 속에 924가지의 사소한 예절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제8권 동규(童規)편은 131장으로 동지(動止: 행동거지) 39장, 교습(教習: 가르쳐 익힘) 38장, 경장(敬長: 어른을 공경함) 23장, 사물(事物: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31장으로 되어 있다. 사소절의 원본은 목판본 8권 2책으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⁰⁾

『사소절』 동규편은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전범(典範)으로 일상적인 실천에 역점을 두는 인

30) 이덕무 원저, 김종권 번역, 『사소절』, 1993, pp.16-17.

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므로³¹⁾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 아동기 인성교육의 내용을 현행 인성교육법의 핵심가치·덕목과 관련지어 예(禮), 효(孝을),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예(禮)

어릴 때 반듯하게 앉는 자세를 익히지 않으면, 자라서 뼈가 굳어져서 반듯하게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므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한쪽으로 기울듯하게 앉게 되며, 따라서 행동이 거칠어지고, 마음도 또한 간특해지므로 구용(九容)이 모두 무너질 것이니 슬픈 일이다.³²⁾

어릴 때부터 바르게 앉고 서고 자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이다. 과거 아동들은 어른 앞에서 예의범절에 따른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걸었으며, 어른 앞에 앉을 때는 발을 뻗고 앉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행동이 거칠면 마음도 간특해져서 구용(九容)³³⁾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를 지도하기 위함이었다.

웃옷은 동정이 접히지 않게 입고 바지는 끈이 늘어뜨려지지 않게 입어야

31) 최배영, 「『사소절』의 식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대학생 인성교육콘텐츠 연구」, 국제차문화학회, 2017, p.214.

32) 원문에 대한 해석본은 모두 전통문화연구회의 해석을 가져왔고 지역이나 의역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士小節』, 童規, 動止, “幼時不習危坐, 及長體骨強梗, 不耐整坐, 箕踞偏側, 從而荒散, 心亦傾邪, 九容盡壞, 可哀也已.”

33) 구용(九容): 소학에 제시된 아홉 가지 바른 몸가짐으로 족용중(足容重)은 걸음걸이는 무겁게, 수용공(수용궁)은 손가짐은 공손하게, 목용단(目容端)은 시선은 바르게, 구용지(口容止)는 입은 신중하게, 성용정(聲容靜)은 말소리는 조용하게, 두용지(頭容直)는 머리는 똑바르게, 기용숙(氣容肅)은 숨소리는 고르게, 입용덕(立容德)은 설 때는 의젓하게, 색용장(色容莊)은 낮빛은 단정하게 용모를 단속하는 모습.

하며, 앉을 때는 반드시 옷깃을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고, 설 때는 반드시 버선을 단정하게 신어야 한다.³⁴⁾

현대는 과거보다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의복은 때와 장소에 알맞게 입어야 한다. 아동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복장 지도는 중요하다. 초등학생들이 화장하고 염색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조기 화장은 피부가 손상되며 잦은 염색은 머릿결이 상한다. 끼는 옷은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와 건강에 해롭다. 학교에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슬리퍼는 계단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려서부터 단정한 의복을 갖추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한다.

(2) 효(孝)

어린 아동이 의복, 음식, 거처 또는 심부름시키는 일 등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화를 내며 원망을 한다면, 그가 장성하였을 때 크게는 흉악하고 작게는 가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선량하고 온순한 버릇을 길러야 군자가 될 수 있다.³⁵⁾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심부름을 잘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심부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심부름하더라도 요구 조건을 달기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솔선수범하여 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심부름이라도 좋은 낫빛으로 행하는 것 또한 효의 덕목임을 자녀에게 지도해야 한다.

아동은 뛰기를 좋아하고 짠 음식을 좋아하므로 열이 많고 조갈이 심하여

34) 『士小節』, 童規, 動止, “衣勿摺領, 袴勿拖祖, 坐必整裾, 立必齊襪.”

35) 『士小節』, 童規, 動止, “凡衣服·飲食·居處 使令若不適意, 恣行恚恨, 及其壯大, 大則凶悖, 小則苛刻, 故方其幼時, 於此等事, 養成良吉溫善之習, 然後可以作君子矣.”

절제 없이 물을 마시어 흔히 고질을 이룬다. 그런 때문에 안정한 버릇을 익히고 음식을 조심하는 것도 또한, 부모에게 효순(孝順)하는 일이다.³⁶⁾

공자는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³⁷⁾ 라고 말했다. 요즘의 아동들은 자칫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부모의 첫 번째 바람은 자녀의 건강이다. 현대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여 소아비만이 라는 질병을 앓기도 한다. 과체중은 대사 장애를 동반하며,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만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 등 심리적인 문제의 발생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을 되새겨야 하겠다.

(3) 정직(正直)

배웠던 글을 돌아앉아서 외울 때 잔글씨로 베껴서 몰래 보고 외운다면, 마음을 속이는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는가. ³⁸⁾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려고 커닝(cunning)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행동은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얻겠다는 나쁜 심보다. 속임수는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림으로써 선생님과 부모님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 번 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다음에는 더 큰 속임수를 반복하게 된다. 아동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정직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도 커닝이 있었다. 지배층인 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온갖 커닝이 난

36) 『士小節』, 童規, 動止, “童子善跳躍, 善鹹食, 故多熱多渴, 以致飲水無節, 多成痼疾. 夫習安靜慎飲啖, 亦孝順之事也.”

37) 『孝經』, 開宗明義,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38) 『士小節』, 童規, 教習, “背誦所業經或史, 而細謔暗覩, 欺心孰甚焉.”

무하였으며 심지어는 대필 시험까지 등장하였다고 한다. 향후 비겁하고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정직함을 배워야 한다.

어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친구들을 모아 시끄럽게 떠들며 못 할 짓이 없이 놀다가, 어른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뚫어 엿보고는 걸음을 가만가만 걷고, 말을 조용조용히 하며, 억지로 글을 읽는 체 하는데 어른을 그렇게 속일 수 있겠는가.³⁹⁾

어른이 외출하였을 때, 부모님의 허락도 안 받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놀다가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쯤 공부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부모님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친구 집에 방문할 때에도 양쪽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방문해야 한다.

경서(經書)를 읽을 때는 많은 양을 탐내어 어름어름 섭렵해서 겨우 보아 넘기고는 이미 그 뜻을 통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사색해야 하고, 사색해서도 통하지 않으면 곧 치부책을 비치했다가 거기에 낱알이 뽑아 적어 때때로 펼쳐 보아야 하지, 절대로 우물우물 넘기어 단점을 숨기고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종신토록 암매(暗昧)하게 지냄으로써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⁴⁰⁾

소극적인 아동일수록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할 용기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본인만 모르는 것이 창피해서인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것이 있는데도 질문하지 않고 아는 척 지나가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이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정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39) 『士小節』, 童規, 動止, “乘長者之不在, 聚伴炒鬧, 無所不至, 忽聞長者警效, 穴窓窺探, 潛步微語, 強讀課書, 長者其可欺乎.”

40) 『士小節』, 童規, 教習, “所讀經文, 不可食多, 務廣涉獵, 鹵莽纔看過, 便謂已通, 小有疑處, 即便思索, 思索不通, 卽置小冊, 逐一抄記, 以時省閱, 切不可含糊護短, 恥於質問, 終身黯暗以自斯也.”

(4) 책임(責任)

『도서편(圖書編)』의 사학규조(社學規條)에 이르기를 “옛날의 교육은 인륜을 가르쳤는데, 후세에 와서는 글줄이나 외고 하는 풍습이 생기자 선왕(先王)의 교육 방법이 사라졌다. 지금 어린 아동을 교육하는 데는 오직 효제(孝悌)·충신(忠信)·예의(禮義)·염치(廉恥)를 위주로 하고, 가꾸고 함양(涵養)하는 방법에서는 시를 노래하도록 유도하여 의지가 발달하게 하고, 예절을 익히도록 유도하여 위기가 엄숙해지게 하고, 글을 읽도록 유도하여 지각이 트이게 해야 한다.”⁴¹⁾

가정과 학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입시 목적을 위한 주입식 교육의 성행은 오늘날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선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효와 충과 예와 염치를 가르치라고 하였다. 더불어 정서 함양을 위해 시를 가르치고, 예절을 익히도록 하며, 책을 읽혀서 깨달음을 얻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소절』 동규편 교습(敎習)의 서문에는 ‘아동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마음가짐을 공명하게 하고 학업을 정대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책임은 어른에게 있지만, 어른들에게 지도받는 아동들은 이러한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5) 존중(尊重)

아동들은 입이 가볍다. 모름지기 경계하여 신중을 가해야 한다. 이를테면, 걸인을 대할 때 비렁뱅이라 부르지 말고, 애꾸눈을 대할 때 외눈박이라 부르지 않으며, 또한, 참혹하고 해괴하고 원통한 말을 가벼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⁴²⁾

41) 『士小節』, 童規, 敎習, “圖書編社學規條曰, 古之敎者, 敎之人倫, 後世記誦詞章之習起, 而先生之敎亡, 今敎童子, 惟以孝悌忠信禮義廉恥爲務, 其栽培涵養之方, 則宜誘之歌詩, 以發志意, 導之習禮, 以肅威儀, 諷之讀書, 以開知覺.”

아동들에게 장애우를 대하는 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 장애우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장애우를 선입견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친절을 베푼다고 의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된다. 호의를 표현한다고 과한 칭찬을 하는 것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변에 장애우가 있다면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와 같은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어른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일어서고, 어른이 훈계하면 반드시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 엄숙히 들어 잊지 말아야 하며, 훈계한 말 중에 혹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세하게 물어야 하지, 어른을 무섭게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 예”하거나 또는 억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 43)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어른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모님이 훈계하면 상황을 피하고자 건성으로 수긍하고, 금방 잊고서 다시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에게 훈계를 들을 때는 반드시 귀담아듣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른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6) 배려(配慮)

아동들은 흔히 조금하고 부박한 버릇이 있다. 모든 행실이 완전하지 못하고 온갖 일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모두 이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아동들을 바른 도리로 양육하는 것이 성인을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하였다.44)

42) 『士小節』, 童規, 動止, “童子口快, 須戒慎重, 如對乞人, 勿斥呼乞丐, 眇者勿斥呼一目, 又如慘酷駭愕冤痛等語, 勿輕出口.”

43) 『士小節』, 童規, 敬長, “長者出入心起立, 長者有訓必拱手, 肅聽無遺, 心有疑必謹問條理, 勿拘尊嚴置不辦, 泛稱唯唯, 亦強曰已知之也.”

44) 『士小節』, 童規, 動止, “童子類多輕躁浮淺之習, 百行之不完全, 萬事之不堅固, 皆由於此, 故, 易曰, 蒙養以正, 聖功也.”

아동들은 차별하지 못하고 수선스럽다. 가끔 음식점에서 소리를 내면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옆 좌석에 피해를 주는 아동을 보곤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예절조차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동이 커서 어찌 될지 우려된다.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거짓말로 남을 놀라게 하고, 남을 간지럽히고[桐膈], 씨름하고[掠骹], 빙빙 돌며 춤추고[旋風舞], 외발로 걷고[商羊步], 재주넘고[筋斗], 숨바꼭질하고[迷藏], 남의 얼굴에 숯검정 칠하고, 종이를 비벼 손님의 코를 쏘시는 등의 교활한 버릇은 모두 금해야 한다.⁴⁵⁾

딱 태어난 아기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백지상태이다. 타고난 천성이 있지만 자라면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인성이 달라진다. 아동들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장난을 치고 때로는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자칫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에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예기』 내칙(內則)에 “남자가 여덟 살 먹거든 비로소 사양하는 버릇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공손하면서 탐내지 않고 겸손하면서 인색하지 않음이 예절의 좋은 일이다. 한(漢)나라 공융(孔融)은 어릴 때 여러 형과 과일을 먹는데, 제일 작은 것을 가졌다. 형이 그 까닭을 물으니 “나는 작으니, 의당 작은 것을 가져야지요.”라고 하였다.⁴⁶⁾

45) 『士小節』, 童規, 動止, “凡設謊驚嚇, 桐膈掠骹, 旋風舞, 商羊步, 筋斗迷藏, 抹煤妝人頰, 撚紙鉞客鼻, 狡獪炫幻之習, 皆可禁也.”

46) 『士小節』, 童規, 教習, “禮曰, 男子八年, 始教之讓, 此遜而不食, 謙而不吝, 禮之善物也, 漢孔融, 幼時, 與諸兄食果, 取小者, 兄問之曰, 我小者, 法當取小者.”

과거에는 형제간 우애를 큰 덕목으로 삼았다. 특히 장손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존재이므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형은 동생을 대할 때 덕으로 대하고 동생은 형을 대할 때 공경으로 대했다. 형과 아우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것은 배려의 덕목이다.

(7) 소통(疏通)

아동이 스승에게 막 글을 배울 때 마음이 조급하여 스승의 뜻풀이 하는 일에 염증을 내어 손으로 책장을 쥐고서[持] 얼른 넘기려고만 하며 심지어 스승의 설명이 끝줄의 뜻에 이르기 전에도 빨리 책장을 넘겨서 글의 뜻을 잘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일이 끝나자마자 얼른 책을 덮어 버린다. 스승이 또한, 소리를 내서 읽어줄 때도 아동은 너무 빨리 읽어서 그 소리가 항시 스승보다 앞서가니, 이것은 스승을 도리어 가르치는 혐의를 범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스승이 가르쳐 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좋은 인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상 몇 가지 일을 깊이 경계하여야 한다.⁴⁷⁾

스승이 학생을 가르칠 때, 스승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아는 체를 하던지 그 뜻을 몰라도 질문도 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이를 경계하는 말이다. 스승과 제자는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의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소리에 있어 깔깔한 소리로 읽는 것은 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끈한 소리로 읽는 것도 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온아하고 자상하고 원활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한다.⁴⁸⁾

47) 『士小節』, 童規, 教習, “童子方受讀, 而心大躁擾, 厭聽師長訓義, 以手指葉, 常欲翻揭, 甚至未及說倒第末行之義, 而徑揭葉也, 不能融解, 亦無問難, 受纔已, 而忙忙覆冊, 長者亦或并聲導讀, 童子則讀甚忙迫, 而其聲常在長者之前, 是犯反教之嫌, 不惟不能領會訓旨, 心不安定, 不成令器, 凡此數者, 可不深警.”

글을 읽을 때 장난을 치듯 큰 소리로 빠르게 읽거나 우물우물하며 작은 목소리로 읽는 학생이 있다. 이런 경우 듣는 학생들이 집중도 안 될뿐더러, 전달력도 떨어진다.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는 정확한 발음과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 또박 발음해서 듣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다.

(8) 협동(協同)

어른이 어떤 아동에게 글을 가르칠 때 다른 아동이 혹시 곁에서 손가락질하며 글의 뜻을 설명하는 등 떠들어 대는 것은 몹시 불경스러운 일이니, 꾸짖어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⁴⁹⁾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본인이 아는 척하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수업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행동이다.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선생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생이 협조하여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3. 현대사회의 아동 인성교육

우리나라는 해방 후, 단기간에 경제를 부흥시킬 전문 인력들이 필요했기에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서구의 선진기술 도입과 외국자본의 유입 등 활발한 경제활동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3위’⁵⁰⁾의 경제

48) 『士小節』, 童規, 教習, “讀書聲澀者滑者, 俱不領會文義, 須當溫詳圓明.”

49) 『士小節』, 童規, 敬長, “長者方授童子書, 他童子, 或從旁指說其義, 誼聒不已者, 不敬之甚也, 呵而抑之可也.”

50) 김민태, 「한국 국가경쟁력 두 계단 상승, 세계 13위」, YTN, 2019. 10. 8.

대국이 되었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치우친 인재 양성의 주도는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학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을 시험 점수와 등급으로 매기고 평가하기에 바쁘다. 학습에서 뒤쳐진 학생들은 열등감 때문에 공부 이외에 잘하는 것이 있어도 자신감을 상실하여 특기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매사 학교생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경쟁 방식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를 위한 교육의 결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의식이 후퇴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조기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1)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담 중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백지상태의 아기가 태어나 세상을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출발을 세 살로 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가정 안에서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정 내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고 건전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한다면, 성장해서도 좋은 습관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통사회에는 웃어른이나 일가친척과 형제자매에 의해 예절 지도와 같은 인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지만, 대부분 한두 자녀를 두고 있는 현대 부모들은 경험이 없이 자녀를 기르게 되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전통사회나 현대사회 모두 인성교육의 출발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바움린드(Baumrind)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부모의 유형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부모, 허용적인(permissive) 부모, 권위 있는(authoritative) 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바움린드가 분류한 부모 유형의 내용을 다음의 <표 II-1>로 정리하였다.

<표 II-1> 바움린드⁵¹⁾의 3가지 부모 양육 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 태도	
독재적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행동 기준 있음. ○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종하도록 함. ○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체벌을 가함. ○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아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억제함.
허용적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음. ○ 가르치려고 하지 않음. ○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며 처벌하지 않음 ○ 스스로 규제, 외부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음. ○ 놀잇감 치우기, 자기 방 정리, 심부름 등 시키지 않음.
권위 있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 사안에 따름. ○ 자발적 의사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두 중요시함. ○ 분명한 통제와 어느 정도 자유도 허용해 줌. ○ 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격려해 줌. ○ 사회적 규칙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도록 지도. ○ 아동의 요구에 반응해 주며 형제간의 우애와 협동을 중요시함.

출처: 강지원 외 29인, 『아동·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청림출판, 2004, p.52.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현대사회의 부모는 독재적인 부모이거나 허용적인 부모로 나뉘어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일반 가정은 허용적인 부모 유형이 흔하고, 일부 가정 폭력 주범인 문제 부모는 독재적인 부모 유형에 속한다.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허용적인

51) 다이애나 바움린드(Baumrind): 버클리대학의 아동발달 전문가이며 임상심리학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책임감이 없고, 자아 통제가 안 되고, 정서적으로 미숙하며, 또래 아동들과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권위 있는 부모 유형은 애정과 통제를 모두 갖춘 부모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허용이지만, 필요할 때 아동에게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지도한다. 자녀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 자녀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이상적인 부모라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부모에게 자라난 아동들은 자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 및 유형 검사’를 스스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부정적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가정교육은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자녀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건전한 인격체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아동을 건전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인 욕구 충족시켜 주기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가정은 아동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곳이다. 유아 및 아동 그리고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안전을 위협당하면 안 되며,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매슬로(Maslow)⁵²⁾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누었는데, 이 중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한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52)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 Maslow):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2) 스킨십 하기와 상담자 되기

스킨십은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를 말하며, 피부접촉에 의한 몸짓과 표정으로 감정의 교류를 나누며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킨십 하기는 촉각의 경험에 의해 자녀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전해주어 자녀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부모에게 스킨십을 많이 받고 자란 아동은 성품이 좋고 우수한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한다.

상담자 되기는 부모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상담자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은 부모보다 또래 아동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비속어 등 유행하는 언어를 따라 하기도 한다.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심지어 욕을 하는 친구가 멋있게 느껴져 무작정 욕을 따라 하기도 한다. 또한,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을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이러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처음에 충격에 휩싸인다. 이때 부모의 대처 방법은 자녀의 부모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 인격체의 상담자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믿음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느껴보도록 조언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역할을 바꾸어 상황극을 묘사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 길러 주기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⁵³⁾ 자녀

53) 이효자 외,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p.319.

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자존감이 학교나 사회에서 자신감, 소속감 등으로 발전하여 적응할 힘이 생긴다. 자녀의 엉뚱한 상상이나 질문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해주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엉뚱함이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작은 실수도 나무라기보다는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원인을 알려주어야 하며 다시 실수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타일러주어야 한다. 실수하였을 때 좌절하지 않는 아동은 이후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된다.

(4) 도덕성 함양을 위한 예절지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인 도덕성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며 기본예절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도덕은 효, 예, 신의, 정직 등의 덕목을 말한다. 자녀의 도덕성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자녀도 부모를 본받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된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상황이 바뀔에 따라 인간의 행동 양식도 변한다. 생활 방식이 간소화되고, 세계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정한 덕목의 형식과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식이나 절차가 아무리 간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예(禮)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예절이라는 도덕적 질서를 실천해야 하므로 부모는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에 말과 행동의 기본예절을 지도해야 한다. 집안에서의 작은 가르침과 실천들이 결국 나와 가족, 이웃,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상호 간

의 유대감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2)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현대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정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기보다는 사회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⁵⁴⁾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이제 인성교육을 가정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인성교육을 주로 가정이 담당했었다면 현대사회의 인성교육은 학교에 그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을 교과목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 함께 다루어 왔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생활지도나 교과 교육의 보조 개념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저학년은 ‘바른생활’, 고학년은 ‘도덕’ 과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도덕 교육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이므로 도덕과 안에 사람의 됴됨이나 바른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과정인 1차 교육과정을 제정 공포했다. 현재 적용 중인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제7차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2007년, 2009년, 2015년 세 번의 개정과 여러 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 적용 중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54)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신정, 2018, p.98.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핵심가치를 설정해 두었고 이러한 핵심가치의 내면화에 중점을 두었다.⁵⁵⁾

핵심가치 덕목 중 성실(誠實)은 유교 전통에서 도(道)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한 핵심가치이고, 배려는 불교 전통에서 자신과 타자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으로 자비(慈悲)와도 연결된 핵심가치임을 강조하였다. 2015년 개정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전통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에 기반한 핵심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사회의 핵심가치인 정의 및 책임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⁵⁶⁾ 이것으로 2015년 개정 도덕과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전통과 현대의 가치·덕목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2009년 12월 23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⁵⁷⁾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⁵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바른생활과 도덕 과목에서 부족한 학교 내 인성교육을 학교 자율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해 운영하도록 하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했던 ‘수업시간 배당 기준표’를 참고로 총 수업시간 중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 비율’을 비교하여 <표 II-2>로 제시하였다.

55)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pp.6~8.

56)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p.5.

57)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호 [별책 1], p.5.

58)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호 [별책 1], p.6.

〈표 II-2〉 2009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비율

구분	총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비율(소수점.1 절사)
1~2학년	1, 680	272	16.1%
3~4학년	1, 972	204	10.3%
5~6학년	2, 176	204	0.9%

출처: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호 [별책 1], p.7.

시간 배당 기준표의 총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2년간의 수업시수이며,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최소 수업 시수임.

위의 〈표 II-2〉에서 시간 배당 비율을 보면 1~2학년의 경우 체험활동 시간 배당이 높아 저학년일수록 공부 위주의 주입식 수업을 하기보다는 오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중점 내용에는 ‘학교는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라고⁵⁹⁾ 명시하여 특히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바른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2011년 8월, 창의적 체험활동 개정 내용 중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선택,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학생들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문화 풍토를 고려하여 특색 있게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폭넓게 활용하

59)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1], p.4.

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⁶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은 더는 학교 내 교사의 역할만이 아니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한 전문 강사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 현재 적용 중이다. 이 교육과정의 중점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창의적 체험학습의 편성 운영의 기준을 살펴보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두며,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의 종류를 예시하였는데 안전·건강 교육 다음으로 인성교육 항목이 명시되어 아동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교육부가 제시했던 ‘수업시간 배당 기준표’를 참고로 총 수업시간 중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 비율’을 제시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2015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비율

구분	총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비율(소수점.1 절사)
1~2학년	1, 744	336 (안전한 생활 64)	19.2%
3~4학년	1, 972	204	10.3%
5~6학년	2, 176	204	0.9%

출처: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 [별책 6], p.3.

<표 II-3>을 보면 2015년 개정된 교육안은 2009년에 개정된 교육안에 비해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한 생활 64시간이 증가하여 총 수업시간

60)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26], p.3.

의 약 19%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배당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생활을 별도로 배정하여 어려서부터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의하면,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였다.⁶¹⁾ 이를 볼 때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인성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전문 분야의 교수자에 의한 인성교육활동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⁶²⁾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정부는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6개월 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⁶³⁾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최초의 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⁶⁴⁾ 전국의 초, 중, 고교는 매년 인성교육 계획

61)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 [별책 1], p.31.

62)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63)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03호, 2015. 7. 20., 제정]

64)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45호, 2019. 12. 10., 일부개정] , 6조 9항.

을 교육감에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인성교육 전문 인력과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⁶⁵⁾ 인성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⁶⁶⁾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⁶⁷⁾ 학교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⁶⁸⁾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⁶⁹⁾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표 II-4>로 재정리하였다.

65)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5조 3항.

66)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4조 2항.

67)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11조 2항.

68)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10조 3항.

69)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제10조 4항.

〈표 II-4〉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제1조)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인성교육 (제2조 1항)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핵심가치·덕목 (제2조 2항)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通), 협동(協同)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
핵심역량 (제2조 3항)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6조 1항)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인성교육 지원 (11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인성교육 평가 (제16조 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전문 인력 양성 (제20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출처: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Ⅲ. 동시문학의 이해

1. 동시문학의 개념 및 역사

1) 동시문학의 개념

문학은 작가가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 사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⁷⁰⁾ 이러한 언어 예술 활동 중 아동과 동심을 지닌 성인을 위해 창작한 문학 작품을 아동문학이라고 하고 동시, 동화, 동요, 아동소설, 아동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문학은 영어로 Children's Literature 혹은 Juvenile Literature라고 한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시나리오도 아동문학의 범주에 넣게 되었다. 아동문학은 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문학으로 성인문학과 구별하려는 편의로 지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서구는 시와 동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시와 동시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형태적 분류로 동시(童詩)는 시가(詩歌)에 속한다. 시(詩)를 ‘인간의 체험이나 자연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운율 있는 간결한 언어로 나타낸 문학의 한 형태’⁷¹⁾로 정의한다면 동시도 시이기 때문에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동시는 독자를 아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와는 다르다.

전영관(2011)은 동시를 고도의 함축언어로 소리와 이미지의 감동을 노래하는, 아동을 위한 문학 장르라고 하였고,⁷²⁾ 이성은(2003)은 아동다운 심리와 정서로 어른과 아동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인이 쓴 시라는 이재철(1989)의

70) 황정현·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pp.1-3.

71) 신헌재·권혁준·곽춘옥, 『아동문학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07, p.119.

72) 전영관,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새롭게 보는 눈」, 『아동문학세상』 제75호, 2011, p.27.

표현을 빌려 동시는 동요와 함께 서정시로부터 발전한 운문 문학의 한 형태로 서 아동을 독자로 삼아 쓴 시라고 하였다.⁷³⁾

동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을 독자로 예상하고 아동의 정서를 읊은 시’와 ‘아동이 지은 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문학가들은 아동이 지은 작품은 ‘아동시’라고 따로 분류하고, 아동문학가가 아동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아동의 정서를 담아서 지은 작품만을 ‘동시’라고 한다. 물론 작품성만 있다면 아동이 지은 작품도 동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시를 시작법을 공부한 작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은 문학작품으로 본다면, 미성숙한 아동에게 작가라는 무거운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동시(童詩)란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한 장르이며 아동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아동문학가가 동심을 담아 시로 표현한 문학성을 지닌 창조적 작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동시문학의 역사

이재철(1983)은 아동문학의 역사를 크게 ‘아동문화 운동시대(1908~45)’와 ‘아동문학 운동시대(1945~현재)’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재철의 분류를 참고로 아동문학 운동시대를 동시문학의 역사로 명명하기로 한다. 또한, 동시를 중심으로 동시문학의 역사를 태동 초창기, 발흥 성장기, 암흑 수난기, 동시문학의 시대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73) 이성은, 『아동문학교육론』, 교육과학사, 2003, p.90.

(1) 태동 초창기 (1908~1923년)

동시의 모태는 동요이므로 동시(童詩)에 대한 역사의 원류를 찾으려면 구비문학(口碑文學)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이전의 아동문학 역사는 사료(史料)의 인멸과 관련 연구의 부재로 어려운 일이다. 동시는 그 기원을 전래동요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 형식은 현대시에서 온 것이다.⁷⁴⁾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역사의 기원은 19세기 이후로 본다. 구체적으로 1908년 11월 1일 육당 최남선에 의해 발간된 『소년』 지에 실린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동시문학의 시작이며 아동문학의 출발이다. 『소년』 지에 권두시로 실린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그동안 일반 시단에서는 신시(新詩)로 분류해왔지만, 아동문학가들은 이를 현대 아동문학의 기원이며 한국 동시의 효시로 보았다. 즉 『소년』 지가 소년이 대상이었고, 문단의 초창기를 형성한 신문학 운동이 기반이긴 했지만, 그 내용과 정신에 있어서 아동문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11년 5월 『소년』 지가 통권 23호로 마지막 호(號)를 내고 강제 폐간(廢刊)당한 후, 흥미를 본위로 한 아동 학습 오락지인 『붉은 저고리』가 1913년 1월에 창간되었다가 1913년 6월 통권(通卷) 12호를 마지막으로 총독부의 명으로 폐간을 당했다. 이후 1913년 9월 최남선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아동 잡지를 지향한 순한글 아동 잡지인 『아이들 보이』를 창간하였는데, 여기에 근대 아동문학에 가까운 작품들이 실리기도 했다. 아이들보이가 인명(人名) 이외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자어까지 순 우리말로 고쳐 쓰려고 노력한 것은 민족사상을 고취한 아동문학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⁵⁾ 같은 시기인 1913년 9월 최남선은 『셋별』 지를 발간하였는데, 오락성이 강한 『아이들 보이』와 지식 향상 위주로 편집한 『붉은 저고리』보다 한층 문예란(文藝欄)을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특색이 있다.⁷⁶⁾

74)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14, p.118.

75)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50-57.

(2) 발흥 성장기 (1923~1940년)

초창기 아동잡지 『붉은 저고리』, 『아동들보이』, 『셋별』 등에 의해 시작된 현대 아동문학은 소파 방정환의 출현으로 진정한 아동문학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1923년 본격 아동지인 『어린이』 창간은 한국 아동문학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23년 3월 20일에 창간되어 12년간 발행되었다가 1934년 122호로 폐간된 방정환의 『어린이』는 아동을 상대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잡지다. 『어린이』는 ‘천도교소년회’와 1923년 5월에 창립된 ‘색동회’의 활동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유기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어린이』를 무대로 1925년을 전후해서 『소년시대』, 『새벗』, 『아동생활』 등 수많은 잡지들이 잇달아 나와, 이른바 아동문학 시대를 이루었다.⁷⁷⁾ 또한, 이 무렵에는 유망한 신인들이 속출하였는데, 1925년 서덕출의 ‘봄편지’가 입선됨을 필두로 윤석중, 이원수, 윤복진 등이 연이어 등단하였고 1933년에는 박영중(박목월), 강소천 등이 입선하여 우리나라 아동문학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들 신인들은 예술적인 창작 동요와 창작 동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그 사적(史的) 역할은 중대했다. 이 시기에 각종 아동 문예지를 비롯한 아동지의 지면을 통해 아동문학가들은 더 많은 동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아동문학 지망생들이 늘어나는 등 1920년대 전후는 아동 잡지와 아동 작가의 황금시대였다. 그러나 아동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어린이』는 1931년 방정환이 작고한 이후 점차 그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일제의 탄압으로 1934년 통권 122호를 내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⁷⁸⁾

76)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55.

77)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84-87.

78)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88~129.

(3) 암흑 수난기 (1940~1945년)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던 해인 2월에 일본은 일어 상용을 강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여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는 등 민족의식과 저항을 잠재우고, 전쟁 협력을 위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말살정책을 폈다. 이로써 공적(公的) 장소에서는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 문학의 본격적인 파괴는 1939년 10월 이광수를 받기인으로 250여 명의 문인이 결성한 ‘조선문인협회’로 더욱 노골화되었고 심지어 문학을 일본어로 창작하도록 탄압을 당하여 우리나라는 모국어를 배반한 식민지 일본 문학만이 존재하였다.⁷⁹⁾

국권침탈 이후 아동문학가들도 일본의 말살정책에 속수무책으로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정치적 탄압으로 많은 문학지가 폐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와 『카톨릭소년』 등이 폐간됨으로써 공백기를 예고하였다. 그리고 1940년 8월 총독부에 의해 「소년조선일보」가 폐간되었다. 아동 잡지 못지않게 각 일간지의 문화면 및 아동면과 자매지로 나온 아동 신문들이 일제 치하에서 아동문학 육성에 공헌을 해왔지만, 군국주의의 전면적 공세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1940년 4월 ‘국민총력연맹’이 조직 되어 ‘황국신민화운동’으로 우리 아동문학은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했고, 12월에 아동 교양지 『소년』마저 폐간되었다. 당시 유일한 아동 잡지인 『아동생활』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1944년 4월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1943년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 등의 모든 문화 단체가 해체된 후 어용 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가 결성되자 일부 작가들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하고 일어로 동요, 동화 등을 발표하는 등 이 시절은 아동문학에 있어 암담한 시국이었다.⁸⁰⁾

79)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204~205.

8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206~210.

(4) 동시문학의 시대(1945년 이후)

1945년 광복 이후 한국문학은 활기를 되찾았고 회람지로 이어오던 아동문학도 소생하여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문단도 좌우익의 대립으로 민족주의의 이념 논쟁에 휘말렸고 아동문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순수 아동문학과 계급논쟁을 위한 문학의 대립 가운데 혼란을 거듭하였고 한때 문단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⁸¹⁾ 광복 후 정치 사회상은 더욱 복잡하였고, 문학계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게 되면서 아동문학도 혼란 상태에 있었으나 당시에는 아동문학의 교육성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문학은 성인 문학만큼 이념의 갈등이 크지는 않았다. 1945년 후반에 작품집을 내어 활동한 대표적 동시 작가는 윤석중, 박영종, 이원수, 김영일, 윤복진 등이다.⁸²⁾

1950년대 전시상황에서도 대구와 부산에서 마해송, 윤석중, 방기환, 이종환 등이 종군 작가단에서 활약하였고, 『소년세계』, 『새벗』, 『아동 다이제스트』 등이 창간되어 다시 생기를 되찾기도 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주요 동시인은 박두진, 박영종, 한정동, 이응창, 이원수, 김영일, 강소천, 박홍근, 최계락, 이종기, 이종택 등이다. 1960년대 본격적인 동시 운동은 형식적인 변혁의 시도, 즉 기교의 개발이었다. 시의 의미 전달 기능을 포기하고 이미지 전달 기능을 위하여 외형물을 완전히 불식해 버리고 내재율에만 의존하려는 자유시의 시대가 되었다.⁸³⁾ 이로써 언어의 유희와 아동시적 발상과 재능만으로 자족하려 했던 한국 동시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동시의 문학적 효용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⁸⁴⁾ 1960년대의 대표적 동시집으로 윤석중의 『바람과 연』, 이원수의 『빨간 열매』, 조유로의 『씨씨한 시집』, 최계락의 『철쭉길의 들꽃』,

81) 이성은, 『아동문학교육론』, 교육과학사, 2003, p.72.

82)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327-368.

83)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494-543.

84) 이재철, 『한국 현대 동시 약사(略史)』, 『한국 동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읽다』, 문학과 문학, 2013, p.22-24.

이종기의 『하늘과 땅의 사랑』, 유경환의 『꽃사슴』, 박경용의 『어른에게 어려운 시』, 김종상의 『흙손엄마』 등이 이정표의 몫을 했다.⁸⁵⁾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동시 작가들이 등단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창작 동시집이 발간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후대가 평가하는 것이 정석이며, 다양한 동시집을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지면의 축소를 위하여 작가와 작품집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2. 동시문학의 교육적 가치

『논어(論語)』의 양화편(陽貨編)에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詩)를 배우지 않는냐? 시(詩)는 감흥(感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치(政治)의 잘잘못을 살필 수 있으며, 무리와 어울릴 수 있으며, 원망(怨望)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⁸⁶⁾고 하였다. 또한,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는 ‘시경에 수록된 시 삼백 편을 한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니,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⁸⁷⁾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예문을 보면 공자는 생각함에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시이며, 도(道)로 나아가 나를 살피고, 화(和)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이고, 효를 알고 충을 아는 것이 시(詩)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넓게 배우고 많이 알아서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시라고 보았다. 이렇듯 고대 동양에서 시(詩)의 효용성은 인간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 오늘날 문학의 교훈성, 아동문학의 교육성에 해당한다.

동시문학은 ‘동심의 표현으로 아동의 심리적, 인격적 계도에 영향을 주는 문

85)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14, p.108.

86) 論語. 陽貨編 9章: 子, 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87) 論語, 爲政篇 2章: 子 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학'이다.⁸⁸⁾ 동시문학은 지나치게 교훈적이어도 안 되겠지만 쾌락을 위한 상업주의적 통속 문학으로 전락하는 일은 더욱 금해야 한다. 동시문학은 아동을 위한 특수 문학이므로 아동의 단계별 발달심리를 고려하여야 하고, 문학의 예술성과 함께 교육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언어 발달

문학작품은 작가들의 탁월한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풍부한 어휘와 문장력으로 짜놓은 예술품이다.⁸⁹⁾ 이러한 언어로 되어 있는 예술작품을 읽은 아동들은 세련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미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언어를 실용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인 '언어적 지능'⁹⁰⁾이 뛰어나게 된다. 즉 풍부한 어휘력과 문장력을 습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등 언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언어 교육은 지식과 인간 사이의 '상호설'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며, 언어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줄 알도록 한다.⁹¹⁾ 동시를 잘 지으려면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단계별, 수준별 동시를 지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동시는 일기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나 상징 등 문학 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진다.

아동들은 자기가 읽은 문학작품의 내용을 글짓기에 잘 반영한다. 즉 문학작품을 많이 읽은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쓸거리를 발견할 줄 알게 되고 발견한 소재에 감정을 붙여 넣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리듬감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할 줄 알게 된다. 아동들은 다양한 동시를 직접 지어보는 경험을 함으

88)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p.31.

89) 신현재·권혁준·곽춘옥, 『아동문학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07, p.34.

90) 언어적 지능: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영역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91) 황정현·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p.120.

로써 상상력과 사고력이 확장되며 창의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시를 낭송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성과 발음 연습을 하게 되고 표현력과 전달력이 발달하여 말하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동시 낭송과 감상 활동으로 내용 확인 능력과 추론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작품을 평가하는 능력이 생기고 청각적 식별력이 좋아지므로 듣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젯밤
살짝 내리던 보슬비

오늘 보니
풀잎에 맺힌 물방울

풀잎에서 떨어질까
꼭 끌어안는다

비가 갠 뒤 만난
즐거운 단짝 친구

- 차주희(해남화산남초등학교 6학년), 「단짝 친구」 전문⁹²⁾

위의 작품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작품이다. 비 갠 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이슬의 근원을 생각하고 풀잎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동그랗게 뭉쳐 있는 이슬이 비가 갠 뒤 단짝 친구를 만나 어깨동무하듯 끌어 앉고 있다고 표현했다. 고학년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의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급 작품이며 작가 수준의 감각적 이미지화가 잘 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작품의 ‘동시 읽기’와 ‘동시 짓기’ 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92) 해남 화산남초등학교 36명의 아동 동시, 『나비처럼 날아간다』, 아동문학세상, 2013, p.63.

2) 대인관계의 사회성 발달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일’이며, 대인관계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은 곧 대인관계 지능의 발달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표정, 목소리, 몸짓 등으로 상대의 기분, 감정, 의도, 동기나 느낌을 분별하고 지각하는 능력이다.⁹³⁾ 아동은 첫 사회생활인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을 경험하곤 한다. 물론 선생님의 보호와 지도가 있지만, 선생님이 모든 아동의 생각을 이해하고 행동을 관찰하기는 힘들다. 저학년일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는 나와 선생님, 나와 친구 등 함께 생활하는 주변인을 소재로 다룬 생활시가 많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아동은 문학작품 속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

내 짝은
내 구슬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나도
내 짝 구슬이 몇 개인지 다 알지요.

내 짝은
내 복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나도 내 짝 복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요.

- 문삼석, 「내 짝은」 전문⁹⁴⁾

93) 황정현 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p.99.

94) 문삼석, 「내 짝은」, 『그냥』, 아동문예, 2013, p.41.

동시 중에 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학교생활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나는 짝과 사이좋아요.’라는 표현은 없지만, 짝과 사이가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 아동들은 가방에 딱지를 가지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구슬 한 주먹씩을 가지고 다니며 놀이를 즐겼다. 동시에서 내 짝은 내 주머니에 구슬이 몇 알 들었는지 다 안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이다. 친구들이 놀릴까 봐 나만 아는 복점도 내 짝은 다 안다고 하였다. 내게 가장 소중한 구슬도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복점도 털어놓을 만큼 나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친하게 지내자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3)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물이므로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이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행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힘이다. 문학의 창조성을 더해주는 것은 상상력이다.

독창적인 예술의 세계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가공의 세계, 허구의 세계를 창조한다. 상상은 과거에 느꼈던 이미지(image)를 재생하는 능력으로 감각이 체험화 되면 기억 속에 잠복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 재생된다.⁹⁵⁾ 이러한 상상력이 일반인들보다 풍부한 시인은 ‘시각적, 공간적 지능’⁹⁶⁾이 높아서 상상력을 이용하는 능력과 사물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시인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95)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p.28.

96) 시각적·공간적 지능: 색, 형태, 구조 등에 관련된 지능으로 사물을 명확히 인지하는 능력.

땅속에는
엄마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조그마한 싹들이 돌아옵니다
상추 싹도 나고
고추 싹도 나고
오이 싹도 나고……

그리고 그 싹들은
쑥쑥 자랍니다

땅속 엄마들은
모두 부지런한가 봅니다

- 강휘생, 「땅속에는」⁹⁷⁾

이 동시는 특별한 시적 비유나 은유가 없어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다. 하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동시이다. 시인은 ‘땅속에는 뭐가 있기에 싹이 나고,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는 엄마가 있는 것처럼 땅속에도 새싹을 키워주는 엄마들이 사는 것이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시인은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힘은 엄마의 부지런한 돌봄’ 때문인 것처럼 상추, 고추, 오이가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땅속 엄마의 부지런함 때문이다’라고 답을 구한다. 이와 같은 작품을 많이 접한 아동은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 스스로 발견하기 힘든 세계를 작품 속 다양한 삶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97) 강휘생, 「땅속에는」, 『엄마 봄이 언제 와』, 미운 오리, 2016, p.36.

4) 정서 발달

문학의 근본 요소는 정서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서정시는 아동의 감성 지능과 정서 지능을 길러주는 데 적합하다. 감수성이 좋은 아동은 동시 속에 담겨 있는 다듬어진 언어들의 울림과 반복되는 언어의 리듬으로부터 흥취를 느끼고, 그 조화로움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다.⁹⁸⁾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겹까

울고 싶은 밤에는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 공재동, 「별」 전문 99)

오늘날 도심 속에 있는 아동은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가득한지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아직도 시골의 밤하늘엔 쏟아져 내릴 듯한 별들이 가

98) 신헌재·권혁준·곽춘옥, 『아동문학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07, p.36.

99) 공재동, 「별」, 『초록풀물』, 고래책방, 2018, pp.88~89.

득하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밤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떠 있었건만, 기쁜 날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만 개의 별이 하늘 가득 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울고 싶은 밤에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느꼈을 것이다. 그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자신의 가슴에도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동시는 마음이 울적한 날 바라본 세상은 슬픈 별로 가득하다는 외로움의 정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실제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서정시를 감상한 아동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시인들이 경험한 아름다운 시적 세계를 그린 동시를 읽고 자란 아동은 감정 이입을 하게 되어 심미적 만족과 정서적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한 편의 좋은 문학작품 속에서 희로애락의 정서를 느끼고 자란 아동은 인간발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어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5) 전인 발달

동시문학은 단계별 언어 선택을 해야 하며 소재와 주제를 나이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 속에서 아동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해야 한다.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이 인생의 주춧돌이 되듯이 어릴 때 외운 동시 한 편이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며,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깨닫게 한다. 아동들이 아름다운 동심 속에서 유영하면서 고운 심성을 기르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전인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작품을 선별해 주어야 한다.

공책 서너 권
널판 위에 늘어놓고
연필 몇 자루
붓통에 꽂아 두고

가게를 지키시다
할아버지는

담뱃대 입에 문 채
낮잠이 드셨는데
학교 마친 아동들이
지나는 길에

연필 한번
쥐었다간
꽂아 두고
공책 한 권 만져 보단
놓고 가고

- 최계락, 「시골 가게」 전문¹⁰⁰⁾

「꼬까신」, 「꽃씨」 등으로 널리 알려진 최계락 시인은 1960년대 활동을 하였으며 1970년에 작고하였다. 우리 민족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 문인들은 자진 월북하거나 강제로 납북되었다. 이러한 불행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시인들의 작품 속에는 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공책 하나, 연필 하나가 귀하던 시절, 도시도 아니고 시골 가게 앞에 진열된 학용품은 아동들에게 그림 속의 떡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종일 앉아서 가게를 지켜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 학용품, 무료하게 가게를 지키던 할아버지는 애꿎

100) 최계락, 「시골 가게」, 『꼬까신』, 문학수첩, 1998, p.17.
띄어쓰기는 현대 맞춤법에 맞게 고쳐 기재하였음.

은 담뱃대만 빼금거리다가 그만 낮잠이 들고 만다.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동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얼른 공책 한 번, 연필 한 번 만져보지만 뚫어진 주머니로 바람만 들락거릴 뿐 동전은 한 푼도 없다. 짓궂은 아동들이라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조는 사이 몰래 집어 줄행랑을 칠 수도 있을 만한데, 아동들은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놓아두고 간다. 이 동시는 아동의 올바른 심성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절대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3. 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

아동들의 성장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작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아동 발달 단계에 근거해 작품을 쓰게 된다. 또한, 아동문학이라는 독자의 한계성 때문에 작품의 상징성과 윤리성, 표현 매체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제한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의 외형상 요건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단순하고 함축적인 작품이 좋다.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으로 리듬감 있는 작품이 좋다. 동시의 내용상 요건은 동심이 담겨 있는 작품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좋다. 나아가 회화적 이미지로 묘사된 작품이 좋다. 해학적 웃음을 주는 작품도 아동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므로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시의 매체가 되는 언어는 정보력이 높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여과 없이 흡수하는 아동들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한 작품을 골라 읽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은 스스로 좋은 문학작품을 골라 읽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로 지은 것을 골라 읽혀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경험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 인성교

육 콘텐츠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에 있으므로 교육 현장의 교수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자¹⁰¹⁾의 작품<표 Ⅲ-1>을 중심으로 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해설하였다.

<표 Ⅲ-1> 동시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

구 분	동시 제목 (연도)	인성 덕목
동심이 담긴 동시	손 내밀걸 (2016)	소통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동시	왜 그랬니 (2014)	배려
물활론적 상상력을 담은 동시	나랑 놀자고 (2009)	존중, 소통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담은 동시	벽화 마을 (2017)	존중, 배려, 협동
단순하고 함축적인 동시	치료 (2019)	존중, 배려
리듬감이 있는 동시	이사 온 직박구리 (2018)	존중
회화적 이미지로 묘사된 동시	꼬마 다람쥐 (2009)	효
해학적 재미를 주는 동시	참나리 (2010)	존중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는 동시	최고 (2019)	예, 존중

1) 동심이 담긴 작품

동심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때 묻지 않은 맑고 순수한 마음이다. 인간 본래의 모습은 이 순수한 동심으로부터 출발한다.

101) 이유정(1963~): 아동문학가, 시인, 시낭송가, 동화구연가, 독서논술지도사. 2006년 『아동문학 세상』 동시 부문 등단. 2017년 『미네르바』 시 부문 당선. 2009년 동시집 『첫눈에 반했어요』, 2018년 『사라진 물고기』 출간. 2012년 제3회 아름다운글문학상, 2018년 제4회 전영택 문학상 수상. 동요 「종이학」 「사라진 물고기」 「겨울 숲 청설모」 「내 마음속 꽃과 나무」 등 발표.

어디 아픈 걸까?
아직 화가 덜 풀린 걸까?

문자라도 올까
휴대전화만 보는 날

화단에 핀 꽃들도
풀이 죽었다.

별것도 아닌데
먼저 손 내밀걸 그랬지

운동장 한 귀퉁이에 앉아
구슬 두 알 굴려본다.

단짝 민우 결석한 날
잘못은 운동장만큼 커지고
나는 구슬처럼 작아진다.

- 이유정, 「손 내밀걸」 전문¹⁰²⁾

이 동시는 조선일보 '가슴으로 읽는 동시'에 실려 아동은 물론 동심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에게 공감을 얻은 작품이다. 이 동시에는 단짝과 다툰 후 친구의 빈자리를 느끼며 먼저 손 내밀지 못한 후회의 동심이 담겨있다. 친구와 다툰 다음 날 공교롭게 친구가 결석했다. 화자는 친구가 결석한 이유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망설인다. 친구와 함께 놀던 운동장은 오늘따라 커다랗게 느껴지고 그럴수록 자신의 잘못도 크게 느껴진다. 시인은 커지고 작아지는 대비를 통해 주제를 선명히 드러냈다. 아이들은 토닥토닥 잘 다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고 친하게

102) 이유정, 「가슴으로 읽는 동시」, 조선일보 30면, 2016년 5월 18일.
<http://m.chosun.com>

지낸다. 하지만 어른들은 상대가 거절당할까 봐 또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두 손 맞잡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아름다운 동심이 담겨 있다.

2)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

동시는 아동의 눈높이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른이 읽어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가 비록 표현하는 소재나 내용이 단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동시 속에 아동다운 정서와 사상이 없다면 동시가 될 수 없다.’¹⁰³⁾ 아동들이 생활에서 쓰고 있는 쉬운 언어로 지은 작품은 아동에게 흥미와 공감을 줄 것이다. 동시는 되도록 한자나 외래어, 속된 말이 쓰이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언어로 지어진 것이 좋다.

양지에서 피는 꽃
자주 꽃
왜 할미꽃일까?

풀밭에서 피는 꽃
노란 꽃
왜 애기똥풀일까?

참 심술궂기도 하지
처음 꽃 이름 불러준 사람

이름만 불러도
방울 소리 들릴 것 같은

103) 전영관,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새롭게 보는 눈」, 『아동문학세상』 제75호, 2011, p.28.

‘방울꽃’처럼

이름만 불러도
꽃향기 멀리 날 것 같은
‘천리향’처럼

예쁜 이름 좀
지어주지 그랬니!

- 이유정, 「왜 그랬니」 전문¹⁰⁴⁾

어른들의 눈에는 양지바른 동산에서 피어난 등 굽은 자주색 꽃이 할미꽃이라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아동의 눈에는 싹이 날 때도 할미꽃, 꽃이 활짝 피어도 할미꽃인 것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동들은 제비꽃 하나에도 ‘꼬부라진 할미꽃’, ‘호호백발 할미꽃’이라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아동들은 꽃 이름 하나에도 작은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워한다. 이 동시는 꽃을 본 적이 있거나 꽃 이름만 알면 어려운 것이 없는 쉬운 언어로 지어진 작품이며 아동의 관찰력과 심리를 잘 파악한 특징이 있다.

아동들은 친구의 특징으로 별명을 만들어 부르기를 좋아한다. 특히 단점으로 별명을 만들어 상대를 놀리며 즐거워한다. 그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아동은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고 심한 경우는 그러한 단점의 유전적인 원인인 부모까지 원망하게 된다. 이 동시의 내면에는 친구를 부를 때는 친구의 이름을 불러 주고, 굳이 별명을 만들어 부르려거든 친구의 장점을 살려 예쁜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104) 이유정, 「이 주의 좋은 시」, 주간교육신문 1097호, 2014년 2월 10일.

3) 물활론적(物活論的) 상상력을 담은 작품

시 작법의 기본은 비유법의 활용이다. 비유법은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풍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동시는 의인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이다. 아동은 현실을 현실로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친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지각이 미분화되어 자기중심적이고, 사물과 동일시하는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 돌, 구름, 바람과 같은 사물이나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고, 요정이나 귀신과 같은 비현실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¹⁰⁵⁾

대부분의 동시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의인법을 많이 사용한 동시를 읽는 아동은 작품이 처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동식물이나 사물을 실제적 경험의 세계로 불러내어 대화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목련꽃이
창문을 툭, 툭, 툭
하얗게 웃습니다.

까치들이
나뭇가지에서 기웃기웃
방안을 기웃거립니다.

참새들이
나들이 와서 짹짹
야단스럽게 불러댁니다.

나랑 놀자고!

- 이유정, 「나랑 놀자고」 전문¹⁰⁶⁾

105)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p.47.

106) 이유정, 「나랑 놀자고」,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p.18.

이 동시는 마지막 연의 ‘나랑 놀자고!’에 아동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다. 방문을 두드리는 목련꽃도 방안을 기웃거리는 까치도 우르르 몰려와 시끄럽게 불러대는 참새들도 아동에게는 모두 지금 밖에서 뛰어놀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꽃나무와 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만 생각하지만, 물활론적 사고를 하는 아동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므로 자연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4)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담은 작품

현대의 시 작법에서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¹⁰⁷⁾라는 방법이 있다. 러시아의 문학비평가인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이 말은 주변에 친숙하거나 참신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일상화되어 친숙한 구조를 가진 문학은 친근감을 주지만,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보편적인 인식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흥미나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를 비유나 시적 형상화 등의 장치를 통해 일상어와는 다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문학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예술이고, 예술은 삶의 경험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에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탈피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경험한 아동들은 이후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관해 새롭게 지각하게 된다.¹⁰⁸⁾

달님 홀로 내려와
놀다 가는 우리 동네

107) 낯설게하기 : 시클롭스키(Shklovsky, V)가 주장한 러시아의 형식주의의 주요한 문학적 수법.

108) 전영관, 「‘낯설게하기’ 또는 ‘다르게 보기’」, 『오늘의 동시문학』 43호, 2013, p.125.

지팡이가 오르고
연탄이 오르고
채소 장수 신 목소리 오르던 곳

형 누나들이 다녀간 뒤
담벼락에선
너울너울 새가 날고
알록달록 꽃이 피고
매일 아침
갈라진 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사람들은 그림책을 넘기며
꽃계단을 오르내립니다.

- 이유정, 「벽화마을」 전문¹⁰⁹⁾

산동네의 낡고 칙칙한 벽에 형과 누나들이 벽화를 그려줌으로 인해 환해진 골목 풍경이 이미지화되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동시이다.

전영관(2013)은 고정관념을 없애고 하얀 백지상태로 출발해야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새로움이 ‘낯설게하기’이며 ‘다르게 보기’라고 하면서 『벽화마을』을 평가했다.¹¹⁰⁾ 이 동시에서는 고정관념을 지운 하얀 백지상태에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등장한다. 우리 동네를 다녀간 ‘달님’을 지우고 난 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인식의 세계인 ‘지팡이’, ‘연탄’, ‘채소 장수 신 목소리’가 채우고, 고정관념인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 ‘형과 누나들’을 지우고 난 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인식의 세계인 ‘새’, ‘꽃’, ‘햇살’이 채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지우고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그린 동시를 읽은 아동은 앞으로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된다.

109) 이유정, 「한국동시대표작선집」, 『바람과 햇빛과도 손을 잡고』, 2017, p.143.

110) 전영관, 「‘낯설게하기’ 또는 ‘다르게 보기’」, 『오늘의 동시문학』 43호, 2013, p125.

5) 단순하고 함축적인 작품

문학의 함축적 의미는 아동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적 근원으로 작용한다.¹¹¹⁾ 기호를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 나이의 아동에게 있어 시어는 간결한 언어를 사용한 작품이 좋다. 시란 가장 함축된 언어로 순간의 이미지를 잘 형상화하여야 좋은 작품이 된다. 또한, 시는 산문과 다르므로 언어 절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시처럼 함축된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한 인상을 준다. 함축된 언어로 지어진 작품을 접한 아동은 그 안에 농축된 의미를 찾게 되어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아동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어휘로 간결하게 지은 동시를 골라 주어야 한다.

산불에 그을린
소나무.
담쟁이가 호호 불며
감아준다.

사람이
상처 낸 자리,
담쟁이가
감싸며 오르고 있다.

- 이유정, 「치료」 전문¹¹²⁾

이 동시는 간결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시에서는 검은색과 초록색의 색채 이미지가 선명하게 대비된다. 예로부터 죽음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생명은 초록색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시인은 굳이 ‘까맣게 그을린 소나무’와 ‘초

111)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p.59.

112) 이유정, 「치료」, 『윌더니스』, 2019, p.165.

록색 담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어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시의 긴밀감을 갖기 위해서지만, 사실적 표현은 아동의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이 나도 도망갈 수도 없는 나무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온몸이 까맣게 그을렸다. 그 소나무를 초록색 담쟁이가 감싸 오르고 있다. 아동의 눈에 비친 담쟁이는 그냥 담쟁이가 아니라 붕대로 소나무의 아픈 곳을 감싸주는 수호천사였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로 산불이 나고,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된다. 이 동시를 읽는 아동은 자연의 일부분인 나무나 풀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아픈 곳을 감싸주는 담쟁이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6) 리듬감이 있는 작품

소리는 인간의 두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어릴수록 소리나 리듬에 민감하므로 의성어나 의태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리듬감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주는 것이 좋다.

감나무 제일 높은 층
어미 직박구리는 종일 안절부절

빼이요 뽁뽁뽁!
아가들 내려다보다가 현기증 나면 어찌지?
빼이요 뽁뽁뽁!
아가들 날갯짓하다가 떨어지면 어찌지?
빼이요 뽁뽁뽁!
아가들 두고 장 보러 어찌 나가지?

누가 다가서기만 해도
어미는 떠들썩 야단이다.

직박구리아,
그렇게 걱정할 거면서
왜 높은 층으로 이사를 온 거니?

- 이유정, 「이사 온 직박구리」 전문¹¹³⁾

화자는 감나무 가지 위 직박구리 둥지를 높은 아파트로 상상하였고 직박구리가 내는 소리를 사람의 말로 의인화하였다. 언어가 없는 동물이 내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새가 내는 소리를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아동이 있기도 하지만,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아동도 있다. 시인은 직박구리가 내는 소리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였다. 직박구리가 내는 소리는 똑 같지만, 아동에게는 다양한 음성언어로 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은 반복적인 의성어 때문이다. 3음절의 의성어를 규칙적으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경쾌한 리듬감으로 동요를 듣는 듯 재미를 느끼며 청각적인 이미지 효과를 더해준다. 이 작품을 읽은 아동은 작품 속 어미 직박구리를 통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감나무 높은 곳의 아기 직박구리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속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울 수 있다.

7) 회화적 이미지로 묘사된 작품

동시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예술적 요소는 음악성과 회화성이다. 현대는 시의 이미지화를 강조하므로 문학에서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지는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이미지는 ‘심상’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심상은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이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과

113) 이유정, 「이사 온 직박구리」, 『아동문학예술』, 2018, p.149.

경험에 의한 것으로 시인들은 이미지를 시인의 정서와 사상에 맞게 새롭게 창출해 낸다. 이러한 작가의 상상력을 해석하기 위하여 아동도 상상력을 자극받는다. 이미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음의 작품은 단순히 의미의 전달과 관념의 도구가 아니라 심상 그 자체로 쓰인 감각적 이미지 중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회화적 이미지즘의 동시이다.

줄무늬 옷 한껏 뽐내며
집으로 달려가는
꼬마 다람쥐

양 볼이 볼록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도토리 두 알 받았지요.

어서어서
엄마에게 자랑하고파

하늘 끌어당겨 으쓱
햇살 끌어당겨 으쓱

쪼르륵
산길을 달고 갑니다.

- 이유정, 「꼬마 다람쥐」 전문¹¹⁴⁾

이 작품은 모두 5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1연은 줄무늬 옷을 입은 다람쥐가 바쁘게 달려가는 이미지, 2연은 양 볼에 도토리를 물고 있는 다람쥐의 얼굴 이미지. 3연과 4연은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신만만한 모습의 이미지, 5연은 쪼르륵 달려가는 다람쥐의 뒷모습 이미지와 꼬불꼬불한 산길이 이어져 있는

114) 이유정, 「꼬마 다람쥐」,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p.92.

이미지가 그려진다. 이 작품은 ‘달려간다, 받았다, 끌어당겨 으쓱’ 등 주로 동작 심상을 사용하였으며. ‘하늘 끌어당겨 으쓱’에서 ‘파란 하늘’처럼 파란이라는 색채를 친절하게 넣어주지 않았지만, 끌어당겨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맑아서 멀게 느껴지는 가을 파란 하늘을 상상하게 하는 색채 심상이 사용되었다. 아동들은 칭찬받을 때는 우쭐대며 조명을 받고 싶어 하고, 꾸중 들을 때는 어두운 곳으로 숨고 싶어 한다. 한풀 꺾인 가을 햇살이라도 끌어당겨 밝은 곳으로 드러나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명암 심상을 사용하여 ‘햇살 끌어당겨 으쓱’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여러 심상이 어울려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어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려가는 꼬마 다람쥐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회화적 이미지즘의 시이다. 이 동시에서 시인의 상상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이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하는 하이라이트(highlight)는 마지막 연이다. 시적 사상이나 메시지는 시인이 사물을 새롭게 보려는 인식과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시인이 마지막 연을 ‘산길을 달려갑니다’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면 이 시는 아마 평범한 시가 되었을 것이다. 내 자녀가 누군가에 인정받는 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과 이러한 기쁨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동시다.

8) 해학적 재미를 주는 작품

해학의 사전적 의미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다. 해학적인 동시는 낙관적, 관조적이며 상대에게 호감과 즐거움을 준다. 문학 속 해학성은 주로 비일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혀를 쏙 내민 걸 보니
 누굴 약 올리나 봐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걸 보니

얇미운 내 동생 닮았네

그런데도
나리라 불러 주니 썩스럽니?
얼굴 붉히며
개끗게 웃는 모습
참 귀엽다

나리
나리
진짜 나리

- 이유정, 「참나리」¹¹⁵⁾ 전문

이 동시는 백합과에 속하는 참나리꽃의 특징을 살려서 쓴 작품이다. 참나리꽃이 활짝 피면 꽃잎은 뒤로 말리고, 다른 꽃에 비해 유난히 긴 꽃술이 나온다. 그 모습을 혀를 내밀고 약 올리는 동생으로 비유했고, 꽃잎에 있는 검은 반점을 동생 얼굴에 나 있는 죽은 깨로 비유했다. 예로부터 죽은 깨는 개구쟁이로 대입되어서, 주근깨가 다닥다닥하다는 것은 영락없이 개구진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런데 여기에 혀까지 내밀고 있으니 개구지다 못해 얄밋게 느껴진다. 형은 꽃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생을 떠올리며 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나리라고 불러주니 썩스럽니’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동생을 놀리는 것 같지만, 3연 마지막 행의 ‘참 귀엽다’는 표현에서 형이 동생의 개구진 모습을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시는 참나리꽃과 동생의 닮을 점을 찾아내 지극히 해학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 담긴 동시이다.

115) 이유정, 「참나리」, 『서울문학』, 2010, p.104.

9)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는 작품

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는 아니지만, 현실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인들은 가끔 문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서는 교육적 차원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형상화해야 좋은 시가 되지만, 동시는 유아나 아동들이 일차적인 독자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편하게 직접적으로 진술할 때가 많다. 교육적인 시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아동문학은 교육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미지 중심의 시와 더불어 의미 중심의 시도 필요한 것이다.

색깔도
모양도 다른
꽃들 중에
향기로운 꽃이
최고!

성격도
생김새도 다른
친구들 중에
마음씨 좋은 벗이
최고!

- 이유정, 「최고」 전문 116)

이 동시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미지나 비유법 등을 이용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술하였다. 시적으로 형상화한 동시보다 의미 파악이 쉽기 때문에 의미가 강하게 전달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꽃들 중

116) 이유정, 「가슴으로 읽는 동시」, 조선일보 A34면, 2019년 8월 9일.
<http://news.chosun.com>

에 향기로운 꽃이 최고이며, 어울려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 중에 마음씨 좋은 벗이 최고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시인이 최고를 가르는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와 마음씨이다. 꽃과 사람을 대비시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친구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작품이다.

10) 교육적인 작품

문학의 교훈설(敎訓設)은 독자를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것으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전시 학자나 계몽주의 문학인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학의 가치가 공리적 효용성에 있다는 관점이다.¹¹⁷⁾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백지상태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봐주는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듯 아동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전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방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모든 매체는 윤리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동시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문학성¹¹⁸⁾과 교육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교육성을 강조하면 예술성이 떨어지므로 현대는 예술성을 강조하고 교육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동시 속에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내용이 스며들어 있어야 더 좋은 문학작품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나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내용이 바람

117) 김철수, 「문학의 교육성과 아동문학」, 『아동문학예술』 17호, 2017, p.386.

118) 문학성: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직하고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주제를 담은 내용이면 더 좋다.

-햇살 주어 고마워요.
해님에게 절하고

- 비를 주어 고마워요.
구름에게 절하고

- 지켜 주어 고마워요.
히수아비에게 절하고…….

산들바람 남실거리는
가을 들판

익어 갈수록 머리 숙이는
예의 바른 벼.

- 이유정, 「벼」 전문¹¹⁹⁾

이 작품은 화자가 가을 들판에 익어가는 벼를 잘 관찰하여 그 속에 새로운 인식을 담아낸 동시이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겠지만, 주변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벼는 익어갈수록 깨달음을 얻게 되고 주변 모든 것에 고맙다고 고개 숙여 절을 한다고 표현하였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람도 인품이나 인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며 예의를 지킨다. 이 동시는 익어가는 벼를 통해서 사람도 성장하고 배우면 더 겸손해져야 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육성이 내포하고 있지만, 직접적 진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대입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교육적이지만 예술적인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119) 이유정, 「벼」, 『2019 오늘의 좋은 동시』, 푸른사상, 2019, p.84.

IV.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구성 및 적용

현재 적용 중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넷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¹²⁰⁾ 전인적 성장, 창의성, 문화적 소양, 배려와 나눔의 실천 등의 항목은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의 목표와 일치된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즉 문화 수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동시 낭송하기, 감상하기 등과 같이 동시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활동은 언어의 기능인, 읽고 쓰기의 수준을 넘어 자연스럽게 정서적, 심미적 문화적 체험활동을 유도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동시를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창의적이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의 구성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들을 위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습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시라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형식이나 내용을 분석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주제로 활용되는 것에 목표가 있다. 다음의 <표 IV-1>은 동시를 활용한 여덟 가지 인성교육

120)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p3.

콘텐츠를 구성해 제시한 것이다.

〈표 IV-1〉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구분	구분	적용 동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1	예(禮)의 콘텐츠	느낌 (2007)	예
2	효(孝)의 콘텐츠	세족식 (2018)	효
3	정직(正直)의 콘텐츠	무거운 마음 (2009)	정직, 배려
4	책임(責任)의 콘텐츠	아빠 엄마 약속했다 (2017)	책임
5	존중(尊重)의 콘텐츠	행복 값 (2019)	존중
6	배려(配慮)의 콘텐츠	마음 교환 (2013)	존중, 배려
7	소통(疏通)의 콘텐츠	눈 온 아침 (2018)	소통
8	협동(協同)의 콘텐츠	만두 빚기 (2019)	협동

1) 예(禮)의 인성교육 콘텐츠

예(禮)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동양에서의 예는 이분(二分)적인 개념인데, 좁은 의미의 예는 단순한 의식절차를 가리키는 말이고, 넓은 의미의 예는 인간 행위 모든 절도(節度)와 질서(秩序)를 포괄한다.¹²¹⁾ 예에 대해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사단(四端)¹²²⁾의 하나인 사양지심(辭讓之心)의 마음이다. 사양지심은 겸손히 사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다. 예를 실천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례나 타인의 강요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자기반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해야 한다.

121) 김진춘, 「孔子的 禮 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6~7.

122) 민중국어사전: 사단(四端)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곧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룸.

예(禮)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김완기의 ‘느낌’을 선정했다. 이 동시의 교육주제는 ‘적절한 호칭으로 예의를 지키자’이다. 교육목표는 잘못된 호칭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호칭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감정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엄마-.”

하고

부르면

응석부리고 싶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업어드리고 싶다. 123)

- 김완기, 「느낌」 전문.

아동은 가족과 친지는 물론 모르는 사람까지 다양한 호칭을 배우며 살아간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린 아동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가 어리광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보살펴드려야 하는 효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엄마’라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게 되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존댓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높이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를 낮추면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일깨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할 줄 알게 되고, 더불어 소통과 협동을 가능하게 할

123) 김완기, 「느낌」, 『연잎에 개구리 미끄럼 타는 날』, 꿈소담이, 2007, p.60.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2) 효(孝)의 인성교육 콘텐츠

효(孝)의 사전적 의미는 ‘아버이를 섬기는 일’이다. 공자는 ‘효는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으며, 『효경』에서 효도는 당연한 도리이며 사람이라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⁴⁾ 전통사회에서는 효의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웃어른도 공경하게 된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결코 타인을 의식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오직 마음에 우러나서 행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 도리이자 어려서부터 몸소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효(孝)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유정의 ‘세족식’을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부모님께 작은 효를 실천하자’이다. 교육목표는 효(孝)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새끼발톱은 반쯤 남고
뒤꿈치는 갈라진 발,
가을 낙엽처럼
물속에 잠겼어요.

정강이를 물에 적시자
까만 풀들이 스르르 눕고
발등을 문지르자
고단함이 천천히 밀려 나와요.

“다 뻤어요.”

124) 주동금, 「‘효’의 관점에서 바라본 ‘순종’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5~6.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드리자
“고마워 아들!”
지그시 감은 아빠 두 눈이
촉촉이 눈물을 머금었어요.

- 이유정, 「세족식」 전문.¹²⁵⁾

세족식은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다. 세족식을 부모님께 행하는 의식은 형식적인 것 같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크다.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권하면 대부분 실행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 아동도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는 쑥스러움 때문이다. 하지만 세족식의 의미와 유래를 알려주고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즐겁게 실천하게 된다. 아동은 새로운 의식을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새로운 의식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것을 신기해하고 즐거워한다. 이 동시는 세족식을 행하여 자녀에게는 효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3) 정직(正直)의 인성교육 콘텐츠

정직(正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다. 맹자의 인의 도덕론(仁義道德論)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을 정직성의 기초로 보았다.¹²⁶⁾ 정직은 사실 그대로의 마음이며, 정직한 마음이 바로 양심이다. 어려서부터 학교 도덕과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하는 덕목이 바로 정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며, 정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에 신뢰

125) 이유정, 「세족식」, 『사라진 물고기』, 아동문예, 2018, p.110.

126) 장희선,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및 해소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1.

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다.

정직(正直)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유정의 ‘무거운 마음’을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정직한 마음을 갖자’이다. 교육목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동시 속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데 있다.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할아버지

잔뜩 굽은 허리에 온 힘을 신지만
앞으로 나가려다 미끄러지고
몇 발자국 내닫고 다시 미끄러지고
어찌지?
어찌나!
마음만 졸이는데
어느새 신호등이 깜빡거린다.

슬며시 뒤에서 밀 걸 그랬지.

친구네 가는 길
용기 없는 내 마음 돌덩이 같다.
언덕도 아닌데
짐도 없는데
발걸음은 자꾸만 미끄러진다.

- 이유정, 「무거운 마음」 전문.127)

후회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동시 속 화자는 힘겨운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한 자신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을 후회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정의롭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능력도 있다. 인간마다 선

127) 이유정, 「무거운 마음」,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p.44.

과 악을 구별하는 척도가 다르고 도덕적인 잣대와 가치 기준은 약간씩 다르다. 누구도 이 아동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후회하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동시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4) 책임(責任)의 인성교육 콘텐츠

책임(責任)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이다. 또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 담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그 결과로 받는 제재이다. 학교나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평가와 도덕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라는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책임(責任)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신현득의 ‘아빠 엄마 약속했다’를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자’이다. 교육목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보며,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책임과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데 있다.

우리 엄마 아빤
맞벌이 부부.

엄마 버는 건
부엌을 가서 그릇이 된다.
예쁜 냄비도 되지.
아가 옷 되고, 아가 신 된다.

아빠 버는 건 누나 등록금.
나머지가 모여서
집이 될 거래.

그러다가 이젠
엄마 번 돈까지
집이 될 거란다.

-신현득, 「아빠 엄마 약속했다」 전문.¹²⁸⁾

가족 구성원은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동시 속 맞벌이 가족의 꿈은 소박하다. 어머니가 맞벌이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소소한 살림 장만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도와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꿈을 알기에 화자는 놀이방에서 돌아온 아가를 잘 보아야 하는 책임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생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가 잘 보고 참아야지.’라는 다짐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나의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부속 하나 하나가 잘 돌아가야 한다. 가정도 학교도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때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5) 존중(尊重)의 인성교육 콘텐츠

존중(尊重)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다. 우리는 사회나 학교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고 협동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덕목이 존중이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있다. 동시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특히 생명 존중이 주제인 작품이 많다. 어릴 때부터 존중의 덕목을 실천한다면 사람이나 자연이 지닌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

존중(尊重)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오자의 ‘행복 값’을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친구를 존중하자’이다. 교육목표는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을

128) 신현득, 「엄마 아빠 약속했다」, 『통일 조국이 뭐예요?』, 시선사, 2017, p.40.

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고 진심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을 깨달아 실천하는 데 있다.

선물값이 비싸
망설이다 샀는데

좋아할 친구 얼굴
자꾸자꾸 떠올라

내 마음이
더 더
행복한 걸 보니

비싸다 여긴 것이
내가 받은 행복 값

- 이오자, 「행복 값」 전문.129)

화자는 용돈을 아껴 비싼 선물을 샀지만, 선물을 받고 좋아할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비싼 것은 자신이 받은 행복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친구에게 기쁜 날은 나에게도 기쁜 날이라는 마음으로 작은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상대를 고귀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의 전달이다. 그렇다고 비싼 선물은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므로, 선물을 고를 때는 학생의 신분에 맞는 적당한 선물을 골라야 한다.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정성껏 적어서 함께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물은 마음을 의미하므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129) 이오자, 「행복 값」, 『까만 하트 오글오글』, 소야, 2019, p.22.

6) 배려(配慮)의 인성교육 콘텐츠

배려(配慮)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씬’이다. 배려의 덕목은 맹자의 사단(四端) 중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사양지심(辭讓之心)¹³⁰⁾에서 우리나라는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배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의(意)를 절도 있게 행하는 덕목이다.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배려는 선함의 선천성 발현으로 교육에 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다.

배려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묘신의 ‘마음 교환’을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이다. 교육목표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옆집에 빈대떡을 가져갔더니
붕지 가득 사과를 담아 주었어요

옆집에서 김치를 가져왔는데
엄마는 삶은 고구마를 갖다 드렸어요

- 엄마, 이게 물물교환이네요
-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 마음을 나누는 마음 교환이지

- 이묘신, 「마음 교환」 전문.¹³¹⁾

아직도 시골에서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지만, 도시의 아파트는 문을 잠그고 지낸다. 화자의 눈에 옆집과 사이좋게 음식을 나눠

130) 공손추편(公孫丑編)에 나오는 맹자의 사단설(四端說) 가운데에 나오는 말.

131) 이묘신, 「마음 교환」, 『너는 1등 하지 마』, 크레용하우스, 2013, p.86.

먹으며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물물교환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 교환’이라고 답하며 웃는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주는 순간 마음을 베푸는 것이다. 아동에게 마음을 담은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산교육이다. 아동은 누구에겐가 무엇을 나누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차츰 몸에 배어 익숙하게 될 것이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발현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배려라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7) 소통(疏通)의 인성교육 콘텐츠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또는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소통은 메시지 전달자와 메시지 수용자 사이에 형성, 전달, 수용, 이해의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¹³²⁾ 이 과정에 문학작품을 대입해 보면, 작가가 공유하고자 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한 것은 형성에 해당하며, 지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전달이고, 독자가 그 창작물을 감상하는 것은 수용이며, 독자가 그 작품 속에서 작가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이해의 과정이다. 소통은 자기와의 소통도 있지만, 대부분 소통은 의사소통을 뜻하므로 소통이 형성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상호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한다. 작가와 독자와의 소통도 문학작품과의 관계 맺음이다. 문학작품 속에서 아동은 독자가 만들어낸 화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다. 창작 작품 속 화자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아동에게는 리얼리티로 다가오기에, 건전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좋은 친구 하나를 사귀는 일과 같다.

소통(疏通)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준관의 ‘눈 온 아침’을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소통의 중요함을 알자’이다. 교육목표는 친구와 다투었을

132) 이해성, 「소통능력신장을 위한 공간중심 미술프로젝트 사례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시학위논문, 2010, p.6.

때 감정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 친구와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데 있다.

며칠 전에 다투고
말도 않고 지내는
승호네 집 쪽으로
눈길을 내고 가다가

우리 집 쪽으로
눈길을 내고 오는
승호와 눈이 딱 마주쳤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씨익 웃었다.

내가 낸 눈길과
승호가 낸 눈길이
씨익 웃으며 두 손을 맞잡았다.

- 이준관, 「눈 온 아침」 전문. 133)

대부분의 아동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다시 친하게 지내지만, 소극적인 아동은 쉽게 화해하지 못하고 지내거나 결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동시는 아동의 심리를 잘 나타낸 동시이다. 다투고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친구와 길에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얼른 눈을 피해 보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몸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에게 씨익 웃음을 보낸 것이다. 웃음을 보는 순간 친구의 마음은 열렸고 둘은 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예전처럼 장난을 치며 눈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끔은 눈빛 교환이나 미소를 건네며 무언의 소통이 더 친근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동시는 굳

133) 이준관, 「눈 온 아침」, 『웃는 입이 예쁜 골목길 아동들』, 2018, p.13.

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간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 작품이다.

8) 협동(協同)의 인성교육 콘텐츠

협동(協同)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함’이다. 협동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의견을 내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조율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며 자신에게 분배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알게 된다.

협동(協同)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동시로는 이유정의 ‘만두 빚기’를 선정했다. 교육주제는 ‘협동하는 자세를 갖자’이다. 교육목표는 생활 속에서 협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며, 협동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까치설날
온 가족이 모여앉아
만두 빚기 시합해요

할머니는 배꼽만두
아빠는 반달만두
엄마는 보자기만두
누나는 조개만두

조물락조물락
온갖 흥내 내지만
여기저기 구멍 난
내 만두는 곰보만두

못난이만두는
따로 담아 주라는
누나 핀잔에도
요리조리 모양내고
기죽지 않는 내 만두

숨씨마다 웃음 담고
기다리는 설날 아침

- 이유정, 「만두 빚기」¹³⁴⁾

전통사회에서는 설날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만두를 빚었다. 요즘은 혼한 광경이 아니지만, 새해 아침에 먹는 만두와 떡국은 명절 음식이다. 이 동시 속에는 가족이 모여앉아,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만두를 빚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아동들은 음식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한다.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은 동생이 뻘뻘 만든 만두에 대한 누나의 핀잔도 사실은 핀잔이 아니고 귀여움의 표현이다. 자신이 직접 만든 만두를 먹기 위해 설날 아침을 기다리는 아동의 마음도 담겨있다. 이 동시를 통해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명절음식을 만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2.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의 적용

아동들의 모든 활동은 아동의 나이와 지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활동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즐거움을 동반하여야 한다. 아동들이 독서 활동을 거부하는 이유는 독서 후 감상문 쓰기 같은 공부 위주의

134) 이유정, 「만두 빚기」,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p.100.

활동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시를 활용한 활동도 마찬가지다. 동시 감상 후 동시의 이해를 위한 설명으로 일관된 주입식 교육을 받거나 ‘감상문 쓰기’나 ‘동시 짓기’라는 활동으로 바로 이어져 맞춤법이나 틀린 문장 첨삭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반복되면 아동들은 동시를 쓰기도 힘든데 틀린 것을 지적받는 괴로움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동시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이런 활동은 교과 과정으로 느껴져 동시를 활용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시 감상 후 놀이나 표현 활동 등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아동들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줄 알게 된다. 놀이와 표현 활동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아동들은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의 기본 요소를 이해함과 동시에 건강한 심신을 기를 수 있으며, 표현 능력과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인성의 가치덕목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1) 동시 낭송

(1) 동시 낭송의 이해

낭송(朗誦)의 사전적 의미는 朗(밝다), 誦(외우다, 노래하다, 읊다, 읽다)을 합하여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움’이다. 낭독은 글자 그대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낭송의 송(誦)을 외울 송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낭송(朗誦)은 곧 암송(暗誦)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낭송가들이 시를 외워서 무대에 오를 때는 낭송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시를 외우지 못하고 무대에 오르면 낭독을 하겠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노래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와 닿는다. 가령 누군가 노래 기기의 자막

을 보고 노래를 하고 있다면, 이 행위를 보고 노래를 낭독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 노래 가사를 암기해 책 읽듯이 외우고 있다면, 이를 보고 노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낭송 또한 마찬가지다. 시를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율과 리듬에 맞게 노래하듯 감정을 넣어 시를 읊었다면 이것은 ‘낭송’이라고 해야 한다. 반대로 시를 암기해서 원고를 보지 않더라도 운율도 없이 외우는 것을 무조건 낭송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낭송은 암기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의 특징을 살려 음의 높낮이나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운율에 맞게 감정을 넣어 노래하듯이 시를 읊으면 진정한 ‘낭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수자는 낭송을 지도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낭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 동시 낭송 교수법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는 인성교육의 8대 가치·덕목에 관련된 동시를 준비해 PPT로 화면에 띄어놓는다. 아동들은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동시 작품에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영상을 함께 준비한다. 아동은 청각적인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동시 낭송을 위한 마이크를 준비해야 한다. 동시 낭송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소리와 의미 전달을 위해 마이크 사용은 필수다. 마이크를 처음 사용하는 아동은 쑥스러워하지만, 숙달되면 도리어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어 동시 낭송을 서로 하겠다고 한다. 동시 낭송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효과가 있다.

교수자가 낭송할 동시를 미리 정해주고, 아동들이 동시에 대한 기본 내용을 미리 알아보면 더욱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 또한, 동시를 외우는 것은 좋지만 강압적으로 외우게 하여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동시 낭송 중에 내

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낭송을 경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암송해야 하는 부담을 주어 동시를 외면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동시 낭송은 원고를 보고 낭송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동시 낭송 활동의 도입 단계에는 생활예절 지도를 넣어 아동들에게 낭송할 때의 바른 자세를 자연스럽게 교육한다. 운동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 낭송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복식호흡’, ‘발성 연습’, ‘발음 연습’을 하며 혀를 푸는 준비 운동을 통해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한다. 발음상 유의해야 할 단어나 식별이 쉽지 않은 발음은 교수자가 미리 ‘발음 지도’를 하며 올려 읽을 곳, 내려 읽을 곳, 끊어 읽을 곳, 쉬어야 할 곳, 늘여 읽을 곳을 미리 원고에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3) 동시 낭송과 감상

동시 낭송은 ‘표현 영역’에 속하므로, 동시 낭송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자연스러운 몸짓과 개성 있는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첫째, 낭송은 배경 음악에 맞춰 감정을 넣어 말하듯이 혹은 노래하듯이 해야 한다. 둘째, 동시 낭송은 순서를 지켜 머뭇거리거나 수줍어하지 말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셋째, 무대 위에 서거나 앞에 나서면 대부분 호흡이 가빠지므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낭송 속도가 빨라지므로 평소보다 천천히 낭송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넷째, 표준 발음법에 맞게 말이나 구절 또는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 또렷한 목소리로 낭송한다. 다섯째,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작품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작품 속 화자와 어울리는 어조나 말투로 낭송한다.

동시 감상은 ‘감상’ 영역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재미있는 점이나 아름다운 점 등의 특징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바

른 자세로 조용히 경청한다. 둘째, 눈을 감으면 집중이 잘 되므로 눈을 감고 동시의 내용이나 장면을 연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상한다. 셋째, 식별이 쉽지 않은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감상한다.

2) 동시 낭송 후 연계 활동

동시 낭송 후 활동은 ‘이해’ 영역에 해당하므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효과에 치중한 주입식 활동으로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수자는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이 지적인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고 실천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아동들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 방법을 계획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교수 활동 계획은 아동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인 표현 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성교육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의 특성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둘째, 아동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 개개인 모두에게 고른 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화합과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활동의 내용과 효과에 따라 1차시나 2차시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수 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발문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음의 <표 IV-2>는 동시 낭송 후의 연계 활동과 그에 활용이 가능한 동시를 선정해 제시한 것이다.

〈표 IV-2〉 동시 낭송 후의 연계 활동

	동시 낭송 후 연계 활동	활용이 가능한 동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1	낱말 놀이하기	잠은 안 오고 (2016)	예(禮)
2	삽화 그리기	빵 세 개 (2013)	배려
3	동요 감상하기	종이학 (2009)	소통, 협동
4	편지 쓰기	정류장에서 (2009)	존중
5	상장 만들기	새싹과 해님 (2014)	책임, 존중, 배려
6	마인드 맵 그리기	생각 그리기 (2019)	소통, 협동
7	동시로 동화 짓기	음표들이 사는 마을 (2017)	협동

(1) 낱말 놀이하기

아동은 어려서부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한다. 그 때문에 낭송 후 활동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이끌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시 작품 속에서 아동의 마음에 와닿거나 재미있는 낱말을 찾아서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한다. 이 활동은 말하기 훈련과 듣기 훈련이 된다. 놀이의 유형에는 의성어·의태어 놀이가 있는데, 작품 속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일상어로, 일상어를 의성어와 의태어로 바꾸는 놀이이다. 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의성어를 배우게 되어 동시를 짓는 기본 훈련이 된다. 다음으로는 작품에 알맞은 순우리말, 속담, 격언, 교훈, 수수께끼 등을 맞추는 놀이가 있다. 여러 가지 놀이로 연결해보는 것은 확장된 사고를 하게 한다.

창밖엔 애기별꽃 소록소록
별이 내려요, 꽃이 내려요.
아침이 오면
알록달록 색동옷 입고

타래버선 복주머니
곱게 땀은 귀밑머리에
배씨댕기 도투락댕기 드리고
언니랑 오빠랑 세배 가요.
숫눈길 사박사박 함께 가요.

오늘은 까치설날
잠은 안 오고
머리맡 설빔도
잠은 안 오고

- 강순예, 「잠은 안 오고」 전문¹³⁵⁾

이 작품은 세시풍속에 관한 동시로 설날 아침을 기다리는 동심이 담겨 있다. 전통사회에서 아동들은 설날과 같은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다. 설날에는 설빔이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사회의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깨끗한 의복을 갖춰 입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린 후, 떡국을 먹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새해 첫인사를 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러한 풍습에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덕목 중에 ‘예’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시를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연계 활동으로 연구자는 ‘순우리말 도전 골든벨’ 놀이를 고안해 보았다. 독후 활동 후 낱말 맞추는 놀이는 이미 여러 교수자가 활용하고 있는 놀이로 단어에 대한 해설을 듣고 단어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고안한 활동은 단순히 단어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미리 단어와 해설만 적힌 예시를 나눠주고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135) 강순예, 「잠은 안 오고」,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48~49.

다. 놀이를 참여할 때는 ‘단어 활용’ 부분에는 공란으로 남겨두어 문장 속에서 순우리말 단어를 맞추면 된다. 준비물은 휴대용 화이트보드, 종합장, 스케치북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우승자는 보상을 주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의성어와 의태어로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우리말은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아름다운 순우리말

구분	단어 해설	단어 활용
소록소록	비나 눈 따위가 보슬보슬 내리는 모양.	밤이슬이 여린 비처럼 (○○○○) 내린다.
사박사박	모래나 눈을 잇따라 가볍게 밟는 소리.	(○○○○) 모래알 밟히는 소리가 난다.
발맘발맘	한 발씩 또는 한 걸음씩 길이나 거리를 가늠하며 걷는 모양.	우리는 (○○○○) 걸었다.
양알양알	윗사람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자꾸 입속말로 군소리를 하는 모양.	(○○○○) 떼를 쓴다.
옥작옥작	여럿이 한곳에 모여 조금 수선스럽게 들끓는 모양.	시장에 사람들이 (○○○○) 들끓는다.
딸막딸막	가벼운 물체 따위가 잇따라 들렸다 내려앉았다 하는 모양.	달리는 차 안에서 강아지가 (○○○○) 움직인다.
끄덕끄덕	자꾸 희미한 불빛 따위가 꺼질 듯 말 듯한 모양.	등잔불이 바람이 (○○○○) 불안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쌀래쌀래	작은 동작으로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잇따라 가로 흔드는 모양.	그가 머리를 (○○○○)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듬쭙듬쭙	자꾸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정답게 안는 모양.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 쥐여 주었다.
까웃까웃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꾸 가늘이는 모양.	고개를 (○○○○) 움직였다.

출처: 「소리가 예쁜 우리말」,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의 내용을 본 연구자가 재정리함.

(2) 삽화 그리기

동시집에는 다양한 삽화가 그려져 있다. 대부분의 동시집에 컬러로 삽화를 넣는 이유는 나이가 어릴수록 글보다 색과 그림에 민감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내용 이해가 빠르고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삽화 그리기는 동시를 감상하면서 주제에 어울리는 삽화를 떠올려 표현해 보는 것이다. 삽화 그리기는 내용 이해가 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으므로 작품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시는 서사가 아니므로 한순간의 핵심 장면을 포착하여 그리도록 유도한다. 삽화를 잘 그리기보다는 동시를 감상하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려 그 장면의 특성을 살려 표현하도록 한다. 가령 힘든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다든지, 선생님께 꾸중 듣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선생님은 커다랗게 화자는 작게 표현한다든지, 외톨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운동장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등 인물의 특성을 살려서 표현한다. 삽화를 그린 후, 간단하게 그림에 대한 소개를 쓰도록 한다. 짧은 글이지만 아동의 글짓기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삽화 그리기가 숙달되면 좀 더 확장된 활동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여러 컷의 감상화로 표현하는 방식, 인물의 성격을 분석한 크로키 그리기, 줄거리로 4컷 만화 그리기 등의 연계 활동을 전개하여 아동들이 흥미를 갖게 한다.

빵 세 개
어떻게 나누나?

- 나 두 개, 동생 한 개,
난 형이니까, 더 크니까.

빵 세 개
그게 아니지.

- 나 한 개, 동생 두 개.
난 형이니까, 더 크니까.

- 문삼석 「빵 세 개」, 전문136)

동시 「빵 세 개」를 감상 후 ‘삽화 그리기’ 활동을 <그림 IV-1>로 예시하였다.



<그림 IV-1> 동시 「빵 세 개」의 삽화

출처: 김천정, 동시 「빵 세 개」의 삽화, 『그냥』, 아침마중, 2013, p.36.

136) 문삼석, 「빵 세 개」, 『그냥』, 아침마중, 2013, p.36.

〈그림 IV-1〉의 삽화는 형의 얼굴이 유난히 크게 부각되어 있다. 형의 눈동자에서 빵 세 개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형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형과 동생은 빵집에서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사 가지고 나오는데, 참을성 없는 동생은 빵이 먹고 싶어 달라고 조른다. 순간 형은 고민한다. ‘빵 세 개를 어떻게 나누지?’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두 개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시 속의 형은 내가 형이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이내 마음을 바꾼다.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동시를 읽는 아동은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고 형제간의 우애를 배우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동요 감상하기

동요 중에는 동시가 동요로 작곡된 것이 많다. 주제에 맞는 영상이나 음반으로 동요를 감상한 후 동요를 불러본다. 이 활동은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거나 율동을 즐겨워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친구와 마주 앉아
학을 접어요

삼각 접기
펼쳐 눌러 접기
접었다 펴기
안쪽으로 접어 올리기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으면
다소곳이 서 있는
학 두 마리

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예쁜 종이학

- 이유정, 「종이학」 전문 137)

〈그림 IV-2〉는 동시 「종이학」을 감상한 후 동요 부르기를 위한 악보를 예시한 것이다.

종이학

이유정 작사
김희정 작곡

친구와 마주앉아 종이접기해요
친구와 도란도란 종이접기해요

삼각접기 펼쳐 접기 접었다 폼
삼각접기 펼쳐 접기 접었다 폼

손끝으로 살살 쓰다듬으면
날개를 살살 뜰어 올리면

다소곳이 서 있는 예쁜 종이학
날아오를 것 같은 예쁜 종이학

〈그림 IV-2〉 동요 「종이학」의 악보

출처: 이유정, 「종이학」 악보, 『제3회 동시와 동요의 만남』, 2017, p.22.

137) 이유정, 「종이학」,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p.57.

이 동요는 동시 「종이학」을 개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노랫말 속의 화자는 친구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친구와 놀이로 종이학을 함께 접는 것은 ‘소통(疏通)’이며, 스승의 날 선생님께서 선물하려고 함께 종이학을 접고 있다면 ‘협동(協同)’의 의미가 담겨 있다.

(4) 편지 쓰기

스토리가 있는 동화집을 읽고 주인공이 되어 편지를 쓰는 활동은 독서 지도 교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굳이 동시 낭송 후 활동으로 이 연계 활동을 제안하는 이유는 짧은 동시 안에서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상상해 글을 쓰는 훈련은 상상력 발달, 창의력 개발, 연상력 발달, 확장적 사고 증진 등의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느 겨울 아침 언손을 호호 불며 정류장에서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이 담긴 동시이다.

어느 먼 나라에서
일하러 온 아저씨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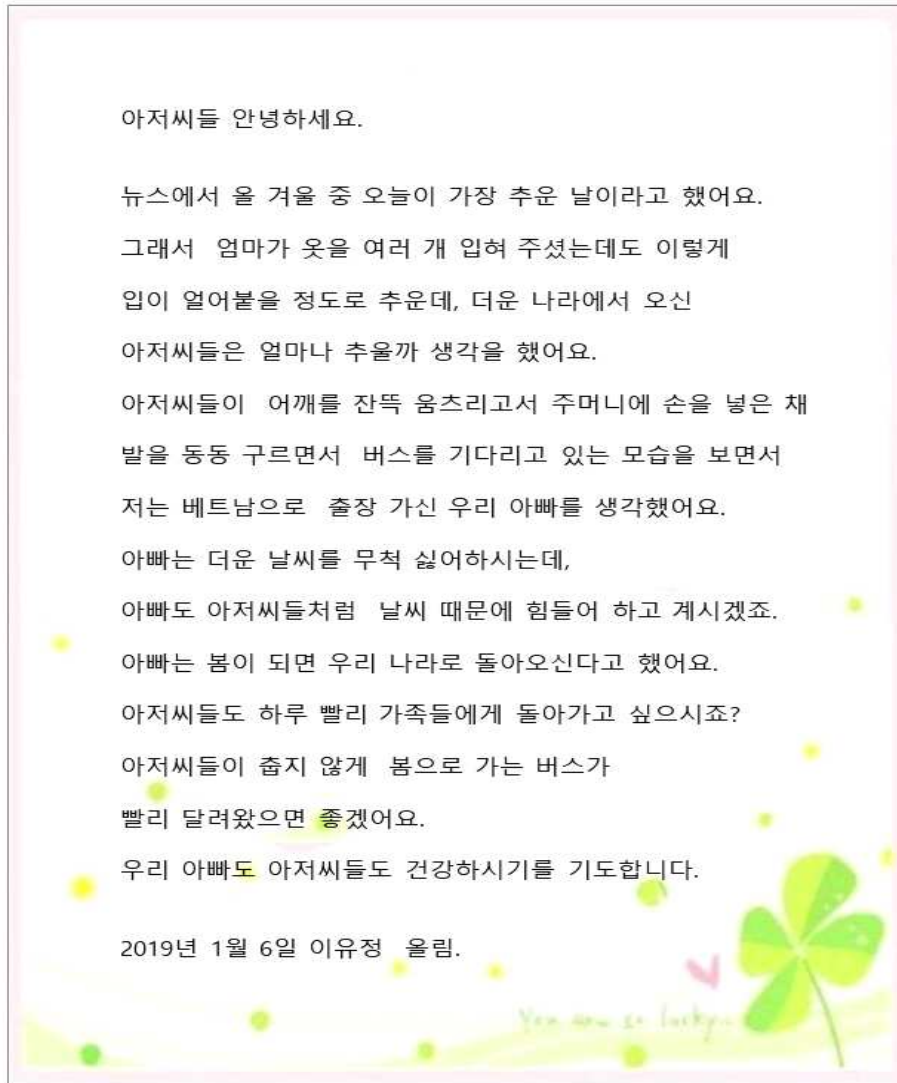
언 손을 호호 불며
정류장에 나와 섰다.

봄으로 가는 버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전병호, 「정류장에서」 전문¹³⁸⁾

138) 전병호, 「정류장에서」, 『봄으로 가는 버스』, 푸는 책들, 2009, p.8.

〈그림 IV-3〉은 동시 「정류장에서」를 감상 후 편지 쓰기 활동을 연구자가 예시해 본 것이다.



〈그림 IV-3〉 외국인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쓰는 편지

몇 줄 안 되는 짧은 동시가 아동의 상상 속에서 풍부한 내용이 담긴 서간문으로 탄생할 수 있다.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은 상상력을 개발시킬 수는 없지

만 반대로 농축된 글을 다시 풀어쓰는 것은 공간을 채우기 위한 상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동시는 고도로 함축된 문학이다. 행과 행, 연과 연 사이에 숨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개연성 있는 의미를 찾아내거나 상상해서 글을 쓰는 활동은 아동들에게 풍부한 사고력을 길러주므로 창의적인 글쓰기 연습을 겸비하는 것이다.

(5) 상장 만들기

상장 만들기 활동도 독후 활동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활동이다. 동시 낭송 후 이 활동을 접목한다면 아동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인성에 관련된 동시 속 주인공은 상을 받을 만한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다.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동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상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시의 특성상, 상을 받는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동시 속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선정해야 하므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행동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또한, 스스로 상(賞)의 이름을 정하고 상장을 주는 이유를 문구를 작성해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등장인물의 행동에 동화되어 본인도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또한, 상을 받는 위치에서 상을 주는 위치로 변하는 활동이므로 아동들은 자신감과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겨울 땅 뚫고 나와
꽃눈 떠보니
해님이
생긋 웃었어요.

나도
생긱 웃었어요.

해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복을 해 주었어요.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안아 줄 테니
예쁜 꿈을 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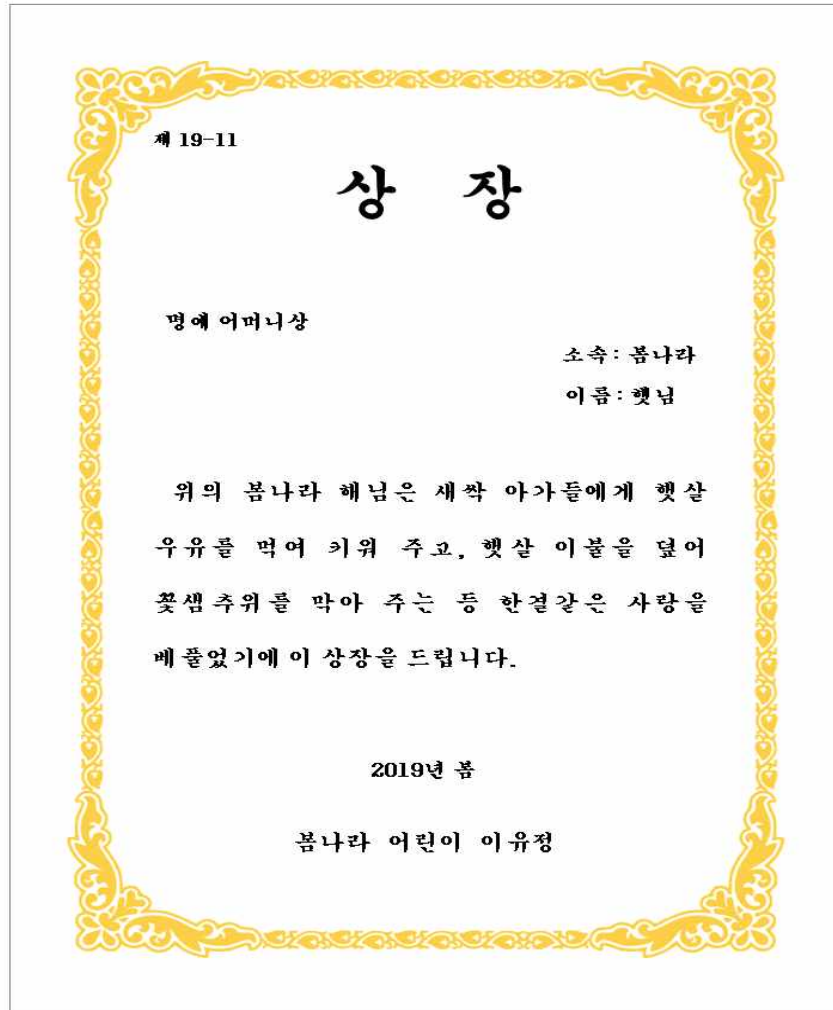
송계훈, 「새싹과 해님」 전문¹³⁹⁾

이 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땅 위로 올라온 새싹을 보고 지은 것으로 책임, 존중, 배려에 해당하는 동시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 해님이 새싹을 키우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따스한 기온의 변화이다.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동심 속의 해님은 따스한 봄에 등장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절대자이다. 새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게 하는 것도 다 해님의 몫이다. 새싹은 아기가 되고 해님은 새싹을 키우는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해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물활론적 사고가 바로 동심이다. 교수자가 상장과 똑같은 형식의 종이를 나눠 주거나 아동이 자유롭게 구상하여 작성하게 하면 된다.

동시 「새싹과 해님」을 감상 후 상장주기 활동의 예시로 <그림 IV-4>를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139) 송계훈, 「햇살한점 바람한점 소식한점」, 『높은오름』, 2014, p.24.



〈그림 IV - 4〉 해님에게 주는 상장

(6) 마인드맵 그리기

영국의 두뇌학자 토니 부잔(Tony Buzan)이 창시한 마인드맵(mindmap)은 마인드(mind)와 맵(map)의 합성어이다. 직역하면 생각의 지도이다. 마인드맵은 1960년대에 등장했으며 세계적인 열풍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생각의

도구이다. 생각을 시각화하는 방법인 마인드맵은 두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개발시킬 수 있는 두뇌 훈련 방법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독후 활동으로 많이 적용된다.

마인드맵은 그림과 중심 낱말을 이용해서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통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종이 한 장에 표현하므로 지도를 보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또한,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뉴런의 모양)을 본떠 정리하는 필기 기법의 마인드맵은 지도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담기 때문에 창의력과 사고력을 깨워 확산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 이미지(핵심 주제), 주요 가지(소주제), 이미지 또는 단어(각각의 가지마다 핵심 이미지나 단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 <표 IV-4>는 종이를 가로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작성한다. 시계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이 편한 대로 그려도 된다. 마인드맵 작성 후 방사선 형태로 발표를 한다.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낱말은 되도록 이미지화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처음에는 낱말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사물처럼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다. 고학년이나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동은 핵심 낱말이나 숫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활동하면 좋다. 하지만 기호에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생각을 첨가할 수도 뺄 수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중심 생각의 첫 이미지와 세부 가지의 끝 이미지는 반드시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표 IV-4〉 단계별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단계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1단계 중심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한가운데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나타내는 중심 이미지를 그린다. (3색 이상 사용) ○ 중심 이미지를 글자로 대신하고 싶으면 글자를 입체적으로 그림처럼 보이도록 적는다.
2단계 주요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이 미지에서 연결된 주요 가지를 굵게 그린다. (각각의 주요 가지는 다른 색 사용) ○ 주요 가지마다 같은 색으로 이름(키워드)을 적는다. (알파벳일 경우 대문자)
3단계 세부 가지 (보조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가지에서 뻗어져 나오는 세부 가지(보조 가지)를 가늘게 그린다. 각 가지마다 이름(키워드)를 적거나 상징 이미지를 그리며 둘 다 사용해도 된다. (단, 하나의 가지에 하나의 이름과 이미지만 가능) ○ 세부 가지에서 뻗어 나오는 세부 가지가 있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같은 색과 같은 길이) ○ 각기 다른 색의 주요 가지들을 첫 번째 주요 가지를 그렸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4단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가지를 추가한다. ○ 필요하면 서로 관계있는 것에 화살표나 둥글게 선을 그어 표시한다.

출처: 토니 부잔 원작, 서현정 옮김,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 미래의 창, 2019, pp.60~63.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머리를 맞대고
신나는 여행 계획을 세워요.
계곡은 아빠를 부르고
섬은 엄마를 부르고
해수욕장은 누나를 부르지만
나는 이미 놀이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의 지도를 그리면서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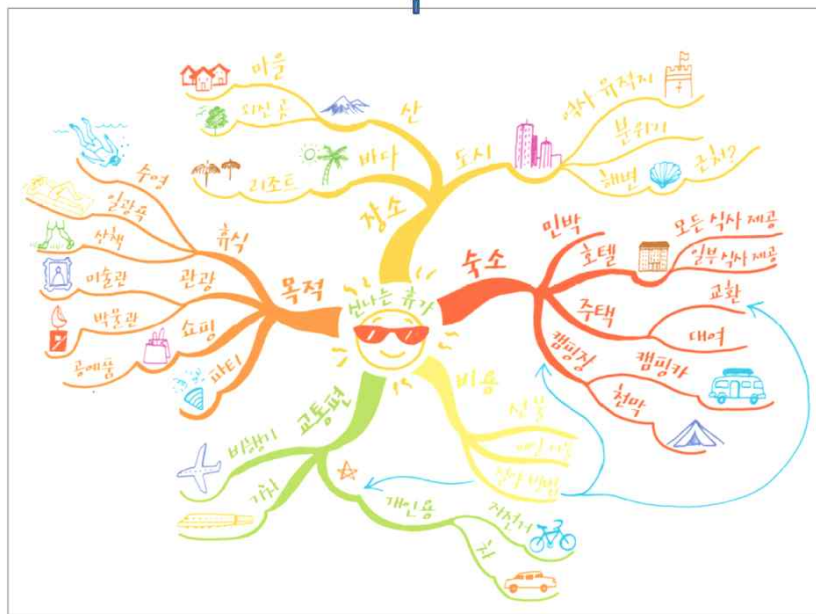
어느덧 마음이 한곳으로 모였답니다.

이유정, 「생각 그리기」 전문¹⁴⁰⁾

마인드맵은 중심 생각에서 연결하여 다른 생각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등 사고를 방사선으로 뻗어가며 확장해간다. 이러한 마인드맵을 동시 낭송 후 연계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동시는 많은 생각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더욱 풍부해지므로 창의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동시 「생각 그리기」 감상 후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예시하여 <그림 IV-5>로 제시하였다. 예시한 마인드맵을 통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 간 소통과 협동의 덕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40) 이유정, 「생각 그리기」, 『월터니스』 제23호, 2019, p.124.



〈그림 IV-5〉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마인드맵

출처: 토니 부잔 원작, 서현정 옮김,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 미래의창, 2019, p.49.

(7) 동시에 동화 짓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동시에 동화 짓기는 듣기에도 생소한 활동일 것이다. 아동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창조란 낯선 시도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접목해 보는 것이 좋다. 동시에 동화를 짓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비슷하거나 새로운 적절한 낱말을 찾아내고 조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글줄을 동시에 만드는 것은 압축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동화로 만드는 것은 해체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편지쓰기에서도 이미 강조했듯이 글을 해체하는 과정은 압축된 단어와 행간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상상하게 되어 상상력 발달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오선지라는 마을에서는
음표들이 모여서 산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일곱 성씨들이
층마다
따로 살고 있어도

노래 동산 하나
꾸며 보자고
누가 불러내면

모두가
나란히
손을 잡고 나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소리들을 엮어
아름다운 노래동산 만들어 간다.

- 강영희, 「음표들이 사는 마을」 전문¹⁴¹⁾

이 동시는 ‘협동’의 덕목과 관련하여 선정한 동시이다. 음표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화로운 화음 때문이다. 사람도 음표들처럼 나란히 손잡고 불협화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동시를 동화로 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아동들은 모든 사물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찰력이 생기게 되고, 스토리를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며 이후 동화를 창작할 힘이 쌓인다. 모든 활동이 시간에 쫓기면 아동들은 흥미를 잃게 된다. 이 연계 활동은 동시 낭송과 동화 짓기, 2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좋다. 활동 후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구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표현에서 재미있는 점, 유익한 점, 아름다운 점 등을 찾아보면서 친구들의 활동과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 동시 「음표들이 사는 마을」 감상 후 동시로 동화 짓기 활동 예시로 <그림 IV-6>을 연구자가 재창작하여 제시하였다.

141) 강영희, 「음표들이 사는 마을」, 『일일사』, 2017, p.84.

♪ 음표들이 사는 마을 ♪

♣ 개작: 이유정

한적한 오지 마을에 작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회관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바쁘시더라도 모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도록 회관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장님은 혼자서 온종일 회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편리한 아파트를 찾아 도시로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장님은 회관 옆, 작은 동산 위에 올라 조용한 마을을 바라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걸까?’

그때였어요. 이장님이 기대앉아 있는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마을을 만드는 거야.’

이장님은 푸른 나무와 알록달록한 꽃이 피는 멋진 노래동산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장님은 마을 입구에 작은 빌라를 지었어요. ‘오선지빌라’라는 이름도 지어 예쁜 팻말도 세워놓았답니다.

그리고 음표들에게 특별 분양을 시작했어요.

새들은 이 소식을 도시에 사는 음표들에게 물어 날랐어요.

“시골에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빌라가 있대. 우리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벗어나 연주할 수 있는 오지 마을로 가자.”

시씨 음표가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말하자 도시 음표가 목소리를 깔고 거들었어요.

“나도 찬성이야, 그동안 자동차 소리, TV 소리 등 시끄러운 기계음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어.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 모두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모여 살아야 제 몫을 할 수 있는 음표들은 단합하여 오지 마을로 찾아왔어요.

1층부터 도씨, 레씨, 미씨, 파씨, 솔씨, 라씨, 시씨 일곱 성씨를 가진 음표들이 차례로 이사를 왔어요.

이장님은 ‘오선지빌라’에 음표들이 모두 입주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성이 다른 음표들은 자분한 성격, 발랄한 성격, 진지한 성격, 밝은 성격 등 성격은 다르지만, 이장님이 연주 한 곡 부탁하면 함께 손잡고 노래동산으로 달려 나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노래동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하루 일을 시작했어요.

“노래동산에는 아침마다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진대. 우리들도 가서 연주에 맞춰 노래하자.”

새들은 아침마다 노래동산에서 합창했고, 이번에도 참새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문을 냈어요.

어느덧 이 소식이 옆 마을에도 전해지고 도시로 이사한 사람들까지 전달되었어요.

삭막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장님께서 도움을 청해도 시큰둥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이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즐겁게 마을 일에 참여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노래동산이 있는 오지 마을을 ‘음표들이 사는 마을’ 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림 IV-6〉 동시로 동화 짓기

V. 결론 및 제언

한국은 세계 경제력 순위 20위권으로 IT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OECD 국가 중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는 가장 낮은 나라,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 자살률이 최고인 나라이다.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학생 웰빙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나아가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⁴²⁾

과거 해방과 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했던 우리나라 정부는 오로지 경제 성장에 몰두해왔고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자녀의 대학 입시와 출세를 위한 교육만을 우선시 해왔다. 여기에 생활과 의식의 서구화로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전통사회의 미풍양속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 교육인 인성교육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사회에서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은 그 핵심이 '인성교육'이며 '예의범절교육'이었다. 인성교육은 가정 안에서의 기본 교육으로 '나'보다 '우리'라는 감정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으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곧 긍정적인 인성교육의 장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아동들은 사람다운 사람됨보다는 물질적 풍요나 편리성을 가져다준 기술 문명을 배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142) 김연주, 「한국 학생 '삶의 만족도' 48개국 중 47위」, 조선일보 사회면, 2017. 4. 21.

올해 우리나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아동들의 장래 희망 순위는 유튜버가 3위를 기록했다.¹⁴³⁾ 이러한 현상은 키즈 유튜버들이 고수익을 창출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키즈 유튜버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아동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자극을 원하는 미디어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동들은 사이버 세계에 갇혀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겪기도 한다.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교생들이 늘고 있으며 그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학교는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인성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성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고, 인성교육을 지도할 전문 교수자 또한 부족한 실정에 처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천편일률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아동들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제안하였고 교육 현장의 교수자들에게는 인성교육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시하였다. 아동은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동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릴 때부터 아동들에게 문학작품을 접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위대한 작품은 예외 없이 엄격한 도덕률의 주장이다.”라는 리스킨(John Ruskin)의 말처럼 문학은 아동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며 문학의 하위 갈래인 동시를 인성교육 활동에 접목하는 것은 전인교육에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43) 이혜운, 「스타 유튜버 비결? 6년간 3, 300개 영상 올려봤나요?」, 조선일보, 2019. 12. 21.

결론적으로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는 순수 예술 활동 중 창의적, 정서적, 감성적인 콘텐츠 개발의 의의를 지닌다. 인성은 전인 교육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 함양해야 하므로 단시간의 교육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이에 무엇보다 인성의 함양이 필요한 시기에 아동들의 발달 수준과 심리에 맞게 구성된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아동을 위한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한 훈육으로 일관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자기희생과 상호협조, 호의와 친절, 공감과 소통 등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지니는 장점을 살려 현 사회의 교육콘텐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은 상급 학교 진학에 초점이 맞춰 있으므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의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는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 교수자들과 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수자는 인성교육에 타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기획하는 사람이며,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전문가를 말한다. 셋째, 인성교육의 시행은 학교장 등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적 실천 인식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후속 연구는 동시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적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원전류>

『士小節』.

『胎教新記』.

『孝經』.

<단행본>

강영희, 「음표들이 사는 마을」, 『일일사』, 2017.

강지원 외 29인, 『아동·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청림출판, 2004.

강휘생, 「땅속에는」, 『엄마 봄이 언제 와』, 미운 오리, 2016.

공재동, 「별」, 『초록폴물』, 고래책방, 2018.

김완기, 「느낌」, 『연잎에 개구리 미끄럼 타는 날』, 꿈소담이, 2007.

김철수, 「문학의 교육성과 아동문학」, 『아동문학예술』 17호, 2017.

김천정, 동시 「빵 세 개」의 삽화, 『그냥』, 아침마중, 2013.

문삼석, 「내 짝은」, 『그냥』, 아동문예, 2013.

문삼석, 「빵 세 개」, 『그냥』, 아침마중, 2013.

사주당 원저, 최희석 번역, 『태교신기』, 한국학술정보원, 2010.

송계훈, 「햇살한점 바람한점 소식한점」, 『높은오름』, 2014.

신헌재·권혁준·곽춘옥, 『아동문학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07.

신현득, 「엄마 아빠 약속했다」, 『통일 조국이 뭐예요?』, 시선사, 2017.

이덕무 원저, 김종권 번역, 『사소절』, 1993.

이묘신, 「마음 교환」, 『너는 1등 하지 마』, 크레용하우스, 2013.

- 이성은, 『아동문학교육론』, 교육과학사, 2003.
- 이오자, 「행복 값」, 『까만 하트 오글오글』, 소야, 2019.
- 이유정, 「꼬마 다람쥐」,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 이유정, 「나랑 놀자고」,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 이유정, 「만두 빚기」,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 이유정, 「무거운 마음」,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 이유정, 「벼」, 『2019 오늘의 좋은 동시』, 푸른사상, 2019.
- 이유정, 「생각 그리기」, 『월더니스』, 제23호, 2019.
- 이유정, 「세족식」, 『사라진 물고기』, 아동문예, 2018.
- 이유정, 「이사 온 직박구리」, 『아동문학예술』, 2018.
- 이유정, 「종이학」, 『첫눈에 반했어요』, 아동문학세상, 2009.
- 이유정, 「종이학」 약보, 『제3회 동시와 동요의 만남』, 2017.
- 이유정, 「참나리」, 『서울문학』, 2010.
- 이유정, 「치료」, 『월더니스』, 2019.
- 이유정, 「한국동시대표작선집」, 『바람과 햇빛과도 손을 잡고』, 2017.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14.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재철, 「한국 현대 동시 약사(略史)」, 『한국 동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읽다』, 문학과 문학, 2013.
- 이준관, 「눈 온 아침」, 『웃는 입이 예쁜 골목길 아동들』, 2018.
- 이준관, 「시를 통한 인성교육」,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2015.
- 이효자 외,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 임원재, 『아동문학 교육론』, 신원문화사, 2000.
- 전병호, 「정류장에서」, 『봄으로 가는 버스』, 푸는 책들, 2009.
- 전영관, 「‘낮설게하기’ 또는 ‘다르게 보기」, 『오늘의 동시문학』 43호,

2013.

전영관,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새롭게 보는 눈」, 『아동문학세상』 제75호, 2011.

조미옥, 『인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책들, 2015.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신정, 2018.

최계락, 「시골 가게」, 『꽃까신』, 문학수첩, 1998.

토니 부잔 원작, 서현정 옮김,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 미래의 창, 2019.

해남 화산남초등학교 36명의 아동 동시, 『나비처럼 날아간다』, 아동문학세상, 2013.

황정현·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논문>

강순예, 「잠은 안 오고」,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경주, 「문학교육이 창의·인성에 미치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태정, 창의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진춘, 「孔자의 禮 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영선, 「문학, 텍스트를 통한 국어과 인성교육 프로젝트 수업 모형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인선,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인성교육의 현황 및 인성 실천도를 중심으로

- 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이해성, 「소통능력신장을 위한 공간중심 미술프로젝트 사례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희선,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및 해소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주동금, 「‘효’의 관점에서 바라본 ‘순종’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주영애, 「『士小節』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에 대한 현대적 해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2018.
- 진선희, 「아동문학과 인성교육의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지, 청람어문교육, 2019.
- 진애라, 「胎教新記 를 통해 본 전통사회의 태교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배영, 「『사소절』의 식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대학생 인성교육콘텐츠 연구」, 국제차문화학회, 2017.

<신문>

- 김경일, 「시 속 ‘은유’ 읽다 보면 과학적 유추 능력도 향상된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17일.
- 김연주, 「한국 학생 '삶의 만족도' 48개국 중 47위」, 조선일보 사회면, 2017년 4월 21일.
- 이유정, 「가슴으로 읽는 동시」, 조선일보 30면, 2016년 5월 18일.
- 이유정, 「가슴으로 읽는 동시」, 조선일보 A34면, 2019년 8월 9일.
- 이유정, 「이 주의 좋은 시」, 주간교육신문 1097호, 2014년 2월 10일.

이혜운, 「스타 유튜버 비결? 6년간 3, 300개 영상 올려봤나요?」, 조선일보,
2019년 12월 21일.

<인터넷 누리집>

교육부, <https://www.mo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립국어원, <https://news.korean.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파이낸셜 뉴스, <http://me2.do/GzQLeaJN>

YTN 뉴스, <https://www.ytn.co.kr>

ABSTRACT

A study of children's poetry in character education

Lee, Yujeong.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trapolates up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15.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is a national mandate that seeks to plant and foster a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and social skills within the students enrolled in public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by combining children's poetry with primary schoo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may maximize its full potential. To do so, I look at Joseon-era character education traditions, compare it to that of the present, and finally integrate the two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poetry.

First, I examine the traditional Joseon-era traditions of character education. Historically, personality-molding exercises began at the pre-natal stage. Sajudang Lee's "Taegyoshingi" theorizes that parental education would pass down to future progeny, as any children would resemble the values of their

birth mother. The Donggyupyeon of "Sassojeol" similarly prescribes eight virtues and values necessary to raise children. These Joseon-era moral codes have since spilled over into today's character education policy.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echoes the eight virtues of the "Sassojeol": etiquette, filial piety,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contemporary Korean character education, I then compare the divide between character education at home versus that in school. The 7th curriculum serves as my primary case study. In comparison to others, the 7th curriculum focuses on living a morally sound lifestyle, and is furthermore reflective of institutional character education today. The curriculum incorporates the 2009-mandated integration of creative activities as well, further contributing to existing character-building modules today. This overview provides a glimpse into Korean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today.

Finally, I examine the conceptual and literary legacy of poetry within contemporary Korean character education studies. I highlight poetry's educational value through an experiment with primary schools. In this experiment, teachers in charge of the character education curricula select morally-upstanding poems to convey the values taught. The selection criteria sought to represent and reflect the values taught within the character education syllabus. Contemporary poems were also included, especially those that purposefully and clearly convey the eight Joseon-era virtues. The poems' full effect was evidenced through simultaneous recitation. Seven activities – including word play, drawing illustrations, children's song appreciation, writing letters, list-making, mind map drawing, and creative

story development – all contribute to the poems' full impact on character education.

Overall, I argue that poetry more fully enforces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 prove that integrating poetry into existing character education studies advances institutional goals. Both older and more contemporary forms of poetry are appropriate mediums to convey Joseon-era values. Ultimately, this study hopes that poetry should benefit character education. Through poetry, national character education should more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moral, creative, and social endeavors of generations to come.